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TV Drama Writers Conference of East Asia
"Cultural Similarity of Asia in TV Dramas"

결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TV Drama Writers Conference of East Asia
"Cultural Similarity of Asia in TV Dramas"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동아시아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TV Drama Writers Conference of East Asia

"Cultural Similarity of Asia in TV Drama"

2008. 10. 10. (토) 14:00 - 18:00 서울 컨벤션 센터

SAMSUNG

개막식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Session I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Session II



환영연



Session III



Session IV





공동 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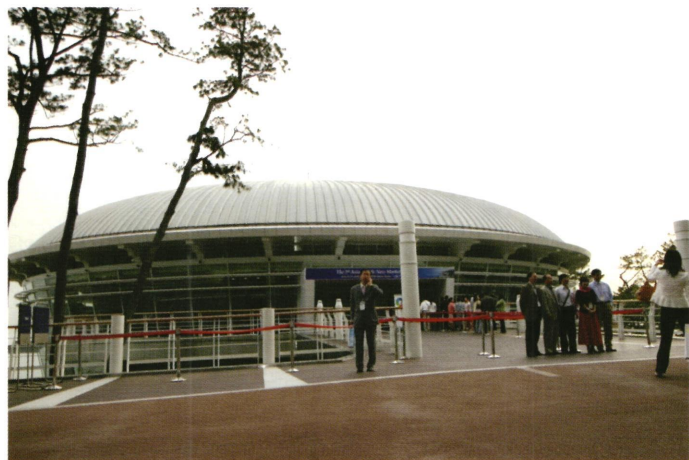


기념촬영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APEC 누리마루 하우스 시찰



Cocktail Re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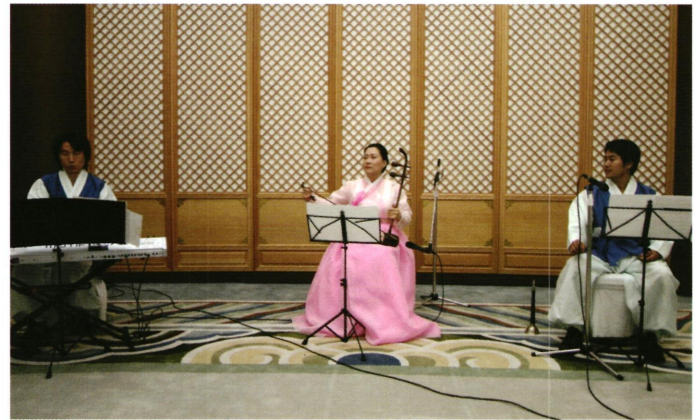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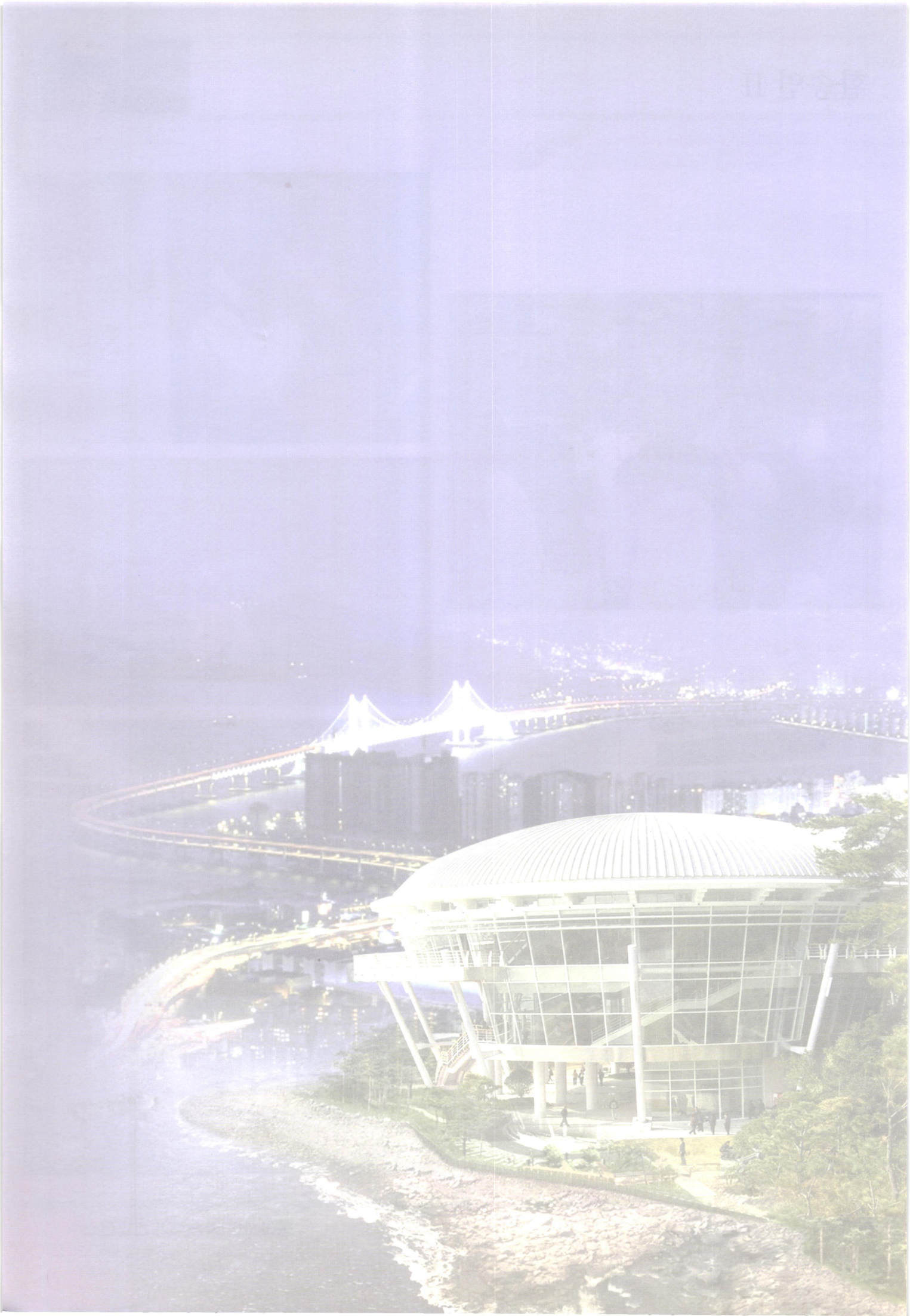
환송연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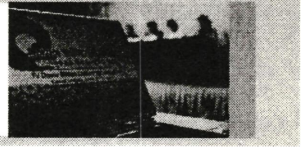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환송연 II







I . 행사개요	3
II . 참가자 명단	7
III . 내용기록	17
IV . 홍보결과	53
V . 부 록	109

I . 행사개요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TV Drama Writers Conference of East Asia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Cultural Similarity of Asia in TV Dramas"

I. 행사개요

1. 행사 전체개요



행 사 명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TV Drama Writer' s Conference of East Asia
주 제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개최기간	2006. 6. 14(수) ~ 17(토) [3박 4일 간]
개최장소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행사규모	약 80여명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드라마 작가 및 주요 국내 인사)
주 최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주 관	한국방송작가협회
후 원	문화관광부 / 부산광역시 / 부산컨벤션뷰로
해외협력	일본방송작가협회, 북경영시예술가협회, 상해미디어 그룹, 상해방송작가협회, 대만 비디오랜드, 홍콩TV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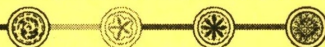
I. 행사개요

2. 전체 프로그램

TIME	6.14(수)	6.15(목)	6.16(금)	6.17(토)
08:00~09:00				
09:00~09:20		개회식 Opening Ceremony	Session III-1 일본 드라마 상영 Japanese Drama Showing	
09:20~10:10		Session I-1 한국 드라마 상영 Korean Drama Showing	Coffee Break	
10:10~10:35		Coffee Break	Session III-2 Presentation, Discussion, Q&A 발표 및 토론	
10:35~10:50		Session I-2 발표 및 토론 Presentation, Discussion, Q&A	Lunch	
10:50~12:00				
12:00~12:10				
12:10~13:00		Lunch		
13:00~13:30				
13:30~14:00		Session II-1 중국 드라마 상영 Chinese Drama Showing	Session IV-1 대만 드라마 상영 Taiwanese Drama Showing	
14:00~14:30		Coffee Break	Coffee Break	
14:30~14:45		Session II-2 발표 및 토론 Presentation, Discussion, Q&A	Session IV-2 발표 및 토론 Presentation, Discussion, Q&A	
14:50~15:05			Break	
15:05~16:00			Session V 총평 Summing up & Closing	
16:00~16:30			휴식 및 이동 Free time, Movement	
16:30~16:40				
16:40~17:40	Pre-Tour			
17:40~18:30			휴식 및 이동 Free time, Movement	
18:30~19:00				
19:00~20:00				
20:00~21:00	Dinner	환영 만찬 Welcome Reception	환송연 Farwell Reception	

Ⅱ. 참가자 명단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TV Drama Writers Conference of East Asia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Cultural Similarity of Asia in TV Dramas"



II. 참가자 명단

1. 참가자 명단

□ KOREA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1	김운경	▪ KBS-T 서울 뚝배기, 파랑새는 있다, 황금사과 ▪ SBS-T 옥이이모 ▪ MBC-T 서울의 달 등
2	김인영	▪ MBC-T 짝, 비밀남녀, 그 햇살이 나에게, 진실, 맛있는 청혼, 결혼하고 싶은 여자 등
3	김은희	▪ KBS-T 알게될거야, 겨울연가, 낭랑 18세
4	김혜린	▪ KBS-T 모정의 강, 은아의 딸, 분이 ▪ MBC-T 김약국의 딸들 등
5	남애리	▪ KBS-R 안녕하세요 황인용 강부자입니다, ▪ MBC-R 라디오 책세상 등
6	노희경	▪ MBC-T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KBS-T 거짓말, 바보같은 사랑, 꽃보다 아름다워, 빗물처럼, 굿바이 솔로
7	박정란	▪ SBS-T 곰탕, 백정의 딸, 소문난 여자 ▪ MBC-T 내일 잊으리 ▪ KBS-T 울 밑에선 봉선화, 노란 손수건, 어여쁜 당신 등
8	박정화	▪ MBC-T 무동이네 집, 창밖에는 태양이 빛났다, 사춘기, 어찌면 좋아 등
9	서현주	▪ KBS-T 미나, 보름달 산타, 사랑이 꽃피는 교실 SBS-T 공통선생, 질주, 그들이 만났을 때 등
10	송정림	▪ KBS-T 너와 나의 노래, 약속, 세상의 아침 SBS-T 성장느낌 18세 등
11	양근승	▪ MBC-T 밀물 ▪ KBS-T 영산강, 어머니, TV손자병법,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등
12	윤은경	▪ KBS-T 알게될거야, 겨울연가, 낭랑 18세
13	이덕옥	▪ (외화번역) KBS-T 판관 포청천, 태극권, 음식남녀 정무문, 패왕별희 ▪ SBS-T 칠협오의, 측천무후 등
14	이선희	▪ (외화번역) 무지개 요정 큐티 하니, 신비의 나라 엘하자드, 포켓몬스터, 짱구는 못말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15	임동호	▪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국장
16	최연지	▪ MBC-T 질투, 애인 ▪ KBS-T 질주, 연인 ▪ SBS-T 사랑은 블루, 착한 남자 등
17	최인수	▪ MBC-T 달평씨의 두 번째 죽음 ▪ KBS-T 민족시인 윤동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두 아들, 소망 등
18	한운사	▪ DBS-R 잘돼갑니다 ▪ MBC-R 빨간 마후라 ▪ KBS-T 현해탄은 알고 있다, 나루터 3대, 아낌없이 주련다, 남과 북 등

II. 참가자 명단



□ CHINA BEIJING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수상경력
	한자	영문		
1	賈月巧	JIA YUE QIAO	■ 드라마 <봄이면 꽃은 핀다>, <제8경찰 구역>, <가을의 이야기>, <가화만사성>, <간부>,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 등	
2	李廷芝	LI TING ZHI	■ 라디오드라마 <천고에 이름을 떨치다>, <전화속 어머니> 등 ■ 드라마 <편집부의 이야기>, <북경인이 뉴욕에서>, <한해 또 한해>, <하늘색 삼환>, <하늘구멍을 막다>, <인자>, <뇌봉이 떠난 나날에> 등	- 다큐멘터리작품, 라디오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국가급 대상 수상 - '오개일공정상', '비천상', '금매상', '화표상', '백화상' 수상
3	陸紅實	LU HONG SHI	■ 드라마 <노예인 어머니>, <흑백>, <아토>, <자기도 모르게>, <프랑스 노장의 이야기> 등	- 1993년 중국대학교 영화학회 우수학술성과 2등상 수상 - 1996년 중앙국가기관 강사단 '우수개인' 칭호 부여 받음 - 1999년 중국대학교 영화드라마학회 우수성과논문 일등상 수상.
4	楊曉雄	YANG XIAO XIONG	■ 영화 <임시아빠>, <편외 남편>, <태후 만세>, <다이어트 관광단> 등 ■ 드라마 <자금성의 해가 지다>, <일생을 노예로 대한천자>, <어사지다성>, <대돈황>, <대청약왕>, <경화연운(장영심과 공동집필)>, <속세소담> 등	
5	于丹	YU DAN	■ 드라마 <공화국사책에서>, <태양은 여전히 떠오른다>, <홍콩의 변화>, <동방시공>, <사회경위>, <오늘이 법을 말하다>, <정품감상>, <텔레비전에서 너, 나 그리고 그>, <뉴스추적>, <대화>, <예술인생> 등	
6	張連生	ZHANG LIAN SHENG	■ <고영감의 기이한 만남 시리즈>, <사형명령을 내린후>, <꽃거리>, <연하수가 흐른다—화가 이기(李琦)>	

II. 참가자 명단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수상경력
	한자	영문		
7	張 東	ZHANG DONG	■ 영화극본 <저격수> ■ 드라마 <군영의 유명 주방장>, <작은 초소>, <왕수성의 예서에서의 전투>, <전쟁영화중흥>, <은해홍성> 등	- 평론글 <고정위의 기초> '대결전' 영화평론 1등상 수상 - 드라마 <작은 초소> 11차 군사드라마 '금성상' 수상 - 단편 1등상 - 비천상 단편2등상 - 금매상 우수단편상 수상. - <군영의 유명주방장> 전국드라마 '비천상' 단편3등 상 수상. - 군사드라마 '금성상' 단편 2등상 수상. - 영화 <저격수> 12차 화표상 우수영화제명상 수상 - 12차 화표상 우수하연 문학극본제명상 - 10차 대학생영화제 조직위원회상 - 상해영화제영화평론인상수상.
8	張 勇	ZHANG YONG	■ 시나리오 <금붕어>, <박하사탕> ■ 책임편집 <홍색기억>, <중경대폭격>, <이혼여변호사>, <나무에 돈 걸렸네>, <평원의 총소리>, <너하고 안 놀아>, <경기장을 누비다>	
9	韓太玉	HAN TAI YU	■ 북경영화 TV 예술가협회 회원	

II. 참가자 명단

□ CHINA SHANGHAI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수상경력
	한자	영문		
1	傅 星	FU XING	■ 소설집 <대지의 중재>, <신비로운 인생> ■ 영화 <옛성 세레나데>, <악혼>, <혈구>, <영혼이 떠나다>, <함께 날다> 등 ■ 드라마 <대상하이 처마밑>, <상하이를 떠돌다>, <新상하이 휴일>, <슬픈연대>, <이혼남자>, <자동차공장지역>, <하늘에 질문하는 정>, <노인의 이야기> 등	- 상해시 청년문학상 수상 - 상해시 문학작품상 수상 - 중국작가협회 정중문문학상수상 - 보강예술상 수상 - 아광연 최우수 스토리상 수상
2	賈鴻源	JIA HONG YUAN	■ 연극 <집밖의 열유> <용감히 탐색, 용감히 창작>, <거리에서 유행하는 붉은 치마>, <중국제조> 등. ■ 영화 <고풍>, <거리에서 유행하는 붉은 치마>, <고아고>, <생명을 대면하고>, <칠검하천산> 등 ■ 드라마 <대조석>, <백구은> 등	- 전국 제1회 우수대본상 수상 - 문화부 특별상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급 - "오개일" 공정상영화화표상, - 제1회 국내외합작 촬영상수상 - 하영영화문학대본상 수상 - 드라마 "비천"장편 일등상수상
3	孫建成	SUN JIAN CHENG	■ 장편소설 <천살>, <실종남편의 N가지 찾는법>, <금목주선>, <아스마신전>, <천사의 언약>, <국경박살> 등	- 상해문학,청명,광주문예상수상
4	張重光	ZHANG CHONG GUANG	■ 문학 <놓아주세요>, <베트남에서 부자>, <바다색과 같은 냉혹함>, <희생을 위한 웅대한 뜻> ■ 영화 <금빛 손톱> ■ 드라마 <대가족>, <살아갈수록 깨닫다>, <동방이야기> 등.	

II. 참가자 명단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수상경력
	한자	영문		
5	王麗萍	WANG LI PING	■ 영화작품 <청춘의 증명>, <녹색심정>, <하늘에서 기쁨이 떨어지다> ■ 드라마 <시어머니, 며느리, 시누이>, <여자아파트>, <세월여가>, <부부원수>, <2000년에 결혼하자>, <결혼하고 싶다>, <타이베이에서 상해로>,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마라>, <한평생 그릇된 사랑>. ■ TV영화 <형제>, <사랑은 파란색>, <밀>, <천사의 날개>. ■ 산문집 <널 만날 때> 계획 촬영 드라마 2부: ■ 계획촬영드라마 <천하보모>, <참새, 봉황되다>	- 1996년 대중TV "금영상" - 최우수 드라마상 수상 - 제2회 TV영화 "백합상" - 심사위원회 특별상수상

□ HONGKONG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수상경력
	한자	영문		
1	歐冠英	AU KOON YING	■ 드라마 <Triumph In The Skies (衝上雲霄)>, <Golden Faith (流金歲月)>, <At The Threshold Of An Era (創世紀)>, <Detective Investigation Files (刑事偵緝檔案)>, <Square Pegs (戀夫成龍)>, <Wars Of In-laws (我的野蠻奶奶)>, <a Femme Desperado (女人唔易做)> <Life Made Simple (阿旺新傳)>, <The Academy (學警雄心)> <Revolving Doors Of Vengeance (酒店風雲)>	
2	賈偉男	KA WAI NAM	■ 드라마 <The Charm Beneath (胭脂水粉)>, <Love Bond (心花放)>, <Virtues Of Harmony (皆大歡喜)>, <Untraceable Evidence (鑑證實錄)>	

II. 참가자 명단



□ TAIWAN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수상경력
	한자	영문		
1	蔡文傑	TSAI TSAO YU	▪ <온정만인간>, <화교 TV 희극전> <황금극장>, <모든 사랑을 위하여>, <영산신전>, <비연경용>, <포청천>, <칠협오의>, <형제유연>, <영산협력>, <시공기안>, <토지공>, <화봉황> 외 다수	
2	李昌民	DENNIS LEE	▪ 다큐멘터리 <중국인 노동자의 피눈물>, <미국 첫번째 화교 여교사>, <고향을 줍다> ▪ 드라마 <포청천>, <칠협오의>, <형제유연>, <나는 나의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다>, <하늘의 눈>, <국신야전기> 외 다수	
3	羅彩娟	LO TSAE JUAN	▪ 드라마 <개구리 변한 왕자>, <천국의 혼례복>, <돌고래만의 연인>, <화향변외편>, <라벤더> 외 다수	
4	陳曼玲	TALIA CHEN	▪ 드라마 <포청천>, <형제유연>,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영산협력>, <무림외사>, <소심일랑>, <소년왕>, <영경전기>, <술잔을 들고 하늘에게 묻다>, <팔진도> 외 다수	
5	鄧儒宗	ERIC TENG	▪ 대만 비디오랜드 부사장	

II. 참가자 명단



□ JAPAN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수상경력
	한자	영문		
1	市川森一	ICHIKAWA·SHINICHI	■ NHK 대하드라마 <황금의 나날>, <산하 피어오르다>, <꽃의 난>, <유혼>, <카제노본카라>	- <유혼> 몬테카를로 국제 텔레비전 페스티벌 최우수 각본상 - 골든 체스트 텔레비전 페스티벌 최우수 각본
2	津川泉	TUGAWA·IZUMI	■ 라디오 드라마 NHK 「회오리바람 식당의 밤」 <아사마> ■ 저작 <J O D K 꺼져버린 콜사인> (한국어판)	
3	横田理恵	YOKOTA·RIE	■ 후지TV <1리터의 눈물> ■ 니혼TV <조폭 선생님>	
4	鈴木嘉一	SUZUKI·YOSIKAZU	■ 요미우리신문 논설위원	
5	中園ミホ	NAKAZONO·MIHO	■ <뉴타운 임시경찰서>, <리버타운 이야기 석양의 소년 탐정단>, <남자의 사정 시리즈 (3) 레몬의 키스>, <점치는 여자>, <기묘한 이야기>, <OL들의 반란 이즈(伊豆) 사원 살인 사건>, <악녀 A·B 천사의 눈동자와 악마의 입술>,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라스트 러브>, <Age, 35 그리워서>, <불쾌한 과실>, <도쿄타워>	
6	南川泰三	MINAMIKAWA·TAIZOU	■ 드라마 <무쓰고로 소년기 1화 ~ 5화>, <마이 서울 스프레스> ■ 다큐멘터리 <야인은 살아 있다>, <요하를 가다>, <티 로드를 가다>, <기리노 나쓰오(桐野夏生) 서스펜스 상하이 기행-실종된 대백부를 찾아>, <중국의 세계유산>, <한국의 일본인 처 그 이후의 나자렛원>	- 도야마 TV 요녕성의 영예상장 수상
7	合田一道	GODA·KAZUMITI	■ <인간등장 ~ 북(北)의 역사를 장식하다> ■ 라디오 프로그램 <내일을 주세요>, <약속의 여름>	
8	香取俊介	KATORI SYUNSUKE	■ 드라마 <사생활> <정숙의 목소리> ■ 연출 <메어리라는 이름의 누나>, <이마무라 쇼헤이 전설>, <모던걸>	

II. 참가자 명단



번호	작가명		주요작품	수상경력
	한자	영문		
9	馬場絵麻	BABA·EMM A	■ 애니메이션 <유희왕 듀엘몬스터즈GX> ■ 버라이어티 <구국 고민치료전대 비너스엔젤>, <OH에루 클럽!> ■ 라이브 이벤트 <Cutie Pop Nation>, <Tokyo Girl-POP EXPO>	
10	熊谷知津	KUMAGAI TIZU	■ <몬트리올 올림픽 개막·영광의 슈퍼스타>,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구름>	
11	藤森康江	FUJIMORI· YASUE	■ 패밀리 프로그램 부	
12	東海林桂	SHOJI KATSURA	■ 라디오드라마 <전국 고등학교 퀴즈 선수권>, <버라이어티>,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도쿄로 씨 눈이 텐!>, <과학교육>, <어리숙한 여행단의 분전기>, <역시 항구! 구국토GOOD>	
13	西谷清治	NISITANI ·SEIJI	■ 다큐멘터리 드라마 <자연·동물과 인간의 관계>, <역사물·풍속화(浮世絵)와 에도문화>	
14	皿倉のぼ る	SARAKURA ·NOBORU	■ 라디오 드라마<어제 꿈>, <파도와 선인장>, <쇼후쿠테이코헤이(笑福亭晃瓶)의 뜨끈 뜨끈 라디오>	
15	田中のぶ	TANAKA ·NOBU	■ 라디오 드라마<유리가면>, <요시나가 사유리의 멋진 당신>, <요리화전><좋은 여행, 꿈 같은 기분>	
16	藤森いず み	FUJIMORI· IZUMI	■ <꽃의 케이지>, <중학생일기>, <무지개 색 정기간>, <쾌활한 3반>, <화요 서스펜스 극장>	
17	高桐唯詩	TAKAGIRI· TADASI	■ <F 1 종합편>, <투르 드 프랑스 종합편>, <마쓰토야 유미의 발자취>	
18	富川元文	TOMIKAWA MOTOHUMI	■ <두 그루의 벚꽃> <노(權)> ■ 시나리오 <우나기>	
19	竹山洋	TAKEYAMA· YOU	■ <히데요시>, <리큐와 마쓰>, <호타루> ■ 영화 <도에이 작품(東映作品)>, <특공병사 이야기>	
20	さらだた まこ	SARADA·T AMAKO	■ TV <요리만세!>, <지금은 밥먹을 때!>, <대희림> ■ 라디오 <아침의 세시기>	

Ⅲ. 내용기록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TV Drama Writers Conference of East Asia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Cultural Similarity of Asia in TV Dramas"

III. 내용기록



1. Session 1 <한국드라마>

주창윤(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사회자

동아시아 작가들이 함께 모인 것은 아마도 처음이라 이번 세미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작가이나 사회적으로 지위는 높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드라마 작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동아시아 문화 블록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런 동아시아 작가들이 모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형성에 있어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있어서도 의미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유사성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입니다.

노희경(한) : 제작품을 골라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12월 kbs 창사특집극으로 나갔던 70분짜리 2부작 드라마입니다. 50대 이상의 사회 주축, 가정의 주축에 대한 드라마가한국에서 주인공으로 방영되는 드라마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특집극 만으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드라마입니다. 특집극에서만이라도 그분들을 조명해보자는 의미를 갖고 시작된 드라마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배우에게 의존했던 부분이 많았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므로 드라마 쓰면서도 재미있었고, 느낀 부분은 ‘나와 다르지 않다, 나이만 다르다.’ 내가 조금 나이든 든 모양만 바뀌어서 쓴 작품입니다.

주창윤 : 개인적으로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매니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읽는 작가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내면적인 마음을 잘 읽어내는 작품입니다.

뿌싱(상) :

이런 회의에 참가하여 되어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의 대륙에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TV드라마에서의 일부 청춘드라마 이거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드라마이건간에 중국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잡지사에 한 젊은이가 한국의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드라마를 좀 더 잘 감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좀 전에 노희경작가가 아주 훌륭한 드라마를 보여줘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동료들도 한국의 드라마는 아주 세세한 부부까지 잘 묘사하고 인

III. 내용기록



간미와 실질적인 내면을 표현하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한국의 TV드라마에서 많은 영향력을. 한국드라마는 편집과 작가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자료를 통해 한국드라마에서 편집과 작가가 70퍼센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드라마에도 이런 내면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집을 통해 좀 더 세세한 부분이 두드러졌으며 편집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자제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제작 과정에서 전반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작가의 작품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인생과 사회를 반영하고 내면의 것을 표현해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생의 또 다른 한 면은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중국의 티비 드라마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드라마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드라마는 제작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의 태도도 많이 반영됩니다. 작가의 영향력이 많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드라마의 문학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첫번째 언급) 지난 회의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인데 한국의 드라마가 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드라마를 좋아하는것일까요. 한국작가들은 그들이 바로 그 이야기의 전개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진부한 명제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작품은 이야기가 좋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가들에게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거시적으로볼 때 미국의드라마도 매우 스토리를 중요시 한다. 헐리우드에서도 스토리를 중시한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로스트를 보면 장르와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의 예리함, 일본의 드라마도 스토리 중시합니다. 일본의 편집자와도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면적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주변화된 문제를 다루는데 중점을두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왜곡된 비정상적인 부분을 다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토리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인가요. 다른 이념을 가진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감동적이고 즐겁게 감상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감정도 잘 묘사해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직면하기 쉬운 소재를 잘 다루어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들. 매우 보편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티비 드라마로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열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교환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미국, 일본, 중국의 티비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에 대해 어떤 동질감,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스토리 전개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지 노작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창윤 : 질문은 나중에 몰아서 답변하겠습니다.

III. 내용기록



위판(북) :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티비드라마는 아시아 문화산업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불러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상 후 느낌의 첫째는 작가의 가치판단이 작품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은 일부는 유머러스합니다. 중국에는 아직 우상숭배의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이런 드라마는 다원화되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작가가 생활에 대한 가치판단을 숨기거나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라마 창작 태도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한 장면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장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철학을 표현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개인의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훌륭한 작품 만들어냅니다. 둘째, 모순과 갈등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겉보기에는 매우잔잔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모순이나 충돌이 서서히 천천히 걸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취했다고 표현할 수있겠습니다. 첫째 갈등은 모든 사람의 외부와 내부의 생활에 대한 충돌. 물질생활이 계속 발달하면서 우리가 속으로추구하는 이상과 걸으로의 현실이 점점 괴리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둘째는 환상과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1부의 끝부분에서 부부가 티비를 보면서 서로 각자의 상상을 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생의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환생과 현실을 잘 접목시키지 못하면 현실은 매우 참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와 외부의 욕구를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동방국가들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도연명 선생은 즉 자신의 마음으로써 몸을 다스리고 자신의 신념으로서 외부의 많은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은 생활 영위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충돌 침묵의 충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의 매우 복잡한 인가상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제약하면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 가정에서 의 책임도. 특히 동양의 윤리에 입각하여 지켜야할 임무. 모든 각각 개인의 마음의 염원 이렇게 3가지 역할이 대부분 사람드링 직면해 있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극에서 곧 퇴직을 앞둔 중년남성의 내면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과 자신 주변의 변하고 있는 현실을 잘 조화시켜서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생활에 있어서 퇴직자들의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러 상황을 우리는 대부분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역할 하는데 있어서, 한 역할이 두드러진다면 나머지 역할은 무시될 것입니다. 만일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면 가정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3가지 역할에 있어서 잘 조화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는 우리에게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III. 내용기록



있습니다. 현대문명과의 충돌인 윤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사회는 최근 20년 동안 많은 경계를 맞이했습니다. 이 전환기에서 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노년층과 젊은이 사이의 가치관의 괴리 같은 것이 있다. 모녀지간, 며느리와 시어머니간의 괴리는 전통과 현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재적인 현실과 이상은 우리가 직면할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때로는 단막극을 쓰는데 있어서 길이는 시간제한에 의해 조절불가능하나 길이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국드라마의 보편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 윤리에 입각하여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내면의 대가를 치뤄내야만 할 것 입니다. 인격과 인생을 분리해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 꿰어내고 표현해내는 것은 중요하고 이는 우리의 공통 문화적 주제입니다. 일부 우상중심으로 한 드라마는 사실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드라마는 분명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배워야 할 것 입니다. 긴장감, 우연장면의 만들어낼 경우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 한국의 동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한국드라마의 생산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품 평가에 있어서 생산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극본, 제작과정, 작은 문제, 방송과 평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시청률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츠카오 이즈미(일) :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이번 주제를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20년정도 같이 산 부부가 이혼하는 현상인데, 최근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속드라마로서 아사히에서 방송된 적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부의 4각 관계가 등장했고 결론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2부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질성이라기보다는 동시대성을 느낍니다. 한국에서는 황혼이혼이라는 용어써 문제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연히 극작가 방송작가이신 윤대성 작가가 쓰신 이혼에 관한 작품이있었습니다. 당신안녕, 이혼의 조건, 두명의 남자 두명의 여자. 대학로 극장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이혼의 조건뿐. 그 중에서도 매우 세세하게 부부간의 위기가 어떠한 경과를 거치면서 어떤 결론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매우 스틸있는 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자를 분석하면, 결혼에서 혼이라는 글자의 분해하면 여자의 어둡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어두운 일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황혼의 혼자가 어둡다는 뜻이고 결혼의 혼자와 같은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년의 우울함을 표현해내는 글자. 황혼이혼이라는 윤대성씨의 작품은 노회경씨가 알지 모르겠습니다. 윤대성 작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학교수라는 말을

III. 내용기록



들었습니다. 노작가가 그분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이라는 것은 포장이라는 테마가 작품 속에 있었는데, 이는 겉보기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는 부부관계의 외면과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와 본심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에 관해서 앞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왜 이 며느리가 자기를 잡지 않았나하는 불만을 갖게됩니다. 이런 본심과 외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는 안으로 감싸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보자기문화라고 하는데, 이어령 선생께서 쓰신 보자기문화의 포스트모던이라는 작품에서 한국문화의 공통점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말했는데, 겉보기와 안으로 숨기는 문화는 일본과 한국의 공통된 키워드로써 노작가의 작품에 표현되었습니다.

세번째는 2007년이 일본에 특별한 의미인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속속 은퇴하는 해이기 때문. 이것은 2007년 문제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여러문제가 있겠지만 후계자문제. 대거 퇴직을 통해 여러문제가 계승되지 않고 단절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하나는 부부간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은 부인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일이 됨. 지금까지는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편찮았으나 하루종일 함께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크고 이게 병이 되는 문제가 일본에서 문제되고 있으며 2007년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숙련의 위기 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들 에이지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로 논의되는데, 이런 중년위기는 내년에 일본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일본에서 방영된다면 흥미로운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매우철학적으로 한국에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나, 일본에는 부부싸움은 개도먹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드라마는 매우 철학적입니다. 젊은 드라마도 사랑은 무엇,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 일본에서 창피해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국작가는 쓰고 있고 이것이 일본에서 인기 얻는 이유. 철학적인 교훈이 일본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류, 일류, 화리라는 3가지 흐름이 합류되어 있습니다. 일류에 관해 말하면, 연애시대처럼 리메이크되어 방송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작품은 케이블TV나 심야시간 때 방영되고 있으며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일본드라마의 개방에 있어서 냉대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윤은경(한) : 한국의 시청자 입장으로써 유행가가되리를 말씀드리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처럼 저도 엄한아버지와 순종적 어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불립니다. 이는 한국에 보편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드라마처럼 아버지도 권위적, 유머스러운, 수다스러운 느낌. 어머니도 순조적, 허영.

III. 내용기록



불만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떨어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서고, 자식들은 밖으로 나돌기 마련. 권위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인들이 더 많이 외로워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게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실이나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마음 불편합니다. 일상의 진실을 포장하지 않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부모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즐기면서 볼 수 있었을테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의 일상의 경험이 반추되는 드라마였다는데 이 드라마의 힘이 있습니다. 유행가가되리의 힘은 일상의 작은 경험을 끄집어내서 반추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창윤 : 노작가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동질성의 문제는 토론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 입니다.

1. 노작가가 이야기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드라마 전개에서 보편적 동질성은 무엇입니까
3.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일본이나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4. 드라마 생산과정에서의 흐름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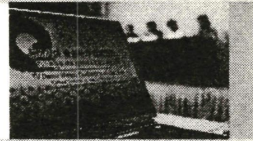
노희경(한)

1. 노작가의 경우 캐릭터 중심으로 가는 편입니다. 스토리전개보다 캐릭터중심으로. 인물을 하나 설정해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 이야기는 나오게 됩니다. 인물 하나하나가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도 남편에 대해 성장과정 이후의 삶까지 생각해서 현재의 문제점 포착, 아내의 성장과정 이후 현재 문제점 포착을 고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캐릭터 메이킹 이후 스토리 열개 짤 수 있습니다.

2. 한국드라마는 내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자의 객관이란 없다는 말을 중시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를 볼 수 없으므로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것,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드라마는 디테일해지고 있는 흐름. 중국작가분이 말씀하신 데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드라마는 스토리 동질성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 욕망에 대한 추구하고 인간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드라마는 지루한데, 이는 세밀하기 때문. 중국드라마는 일본과 반대 입니다. 한국드라마가 세밀해지는 것은 밖으로 사회로 향하던 시선이 내면으로 오면서 캐릭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3. 일본의 황혼이혼. 한국에 황혼이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동질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가장 야무진 꿈이 아내에

III. 내용기록



게 존경 받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등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 중년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닌 듯. 사회 속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다 그게 더 큰 문제일 것 입니다. 이 드라마도 제 기획 의도와 달리 많은 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권력 중심으로 보거나 사회의 대항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여성의 편을 드는 것을 시청률 상승하기 위한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분법적으로 남자의 권위에 대한 반대로 보아야 하나. 누구나 다 같은 인간으로 같은 삶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이 드라마의 끝은 이혼이 아니라, 지루하게 잡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려는 남편을 아내가 달래면서 재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드라마가 종적인 관계는 작가 스스로가 골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같은 인간으로서 위로해주고 반추해 줄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 드라마를 썼습니다.

[객석질문]

카토리 시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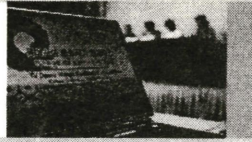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의 5년 10년 전에 발생했던 문제가 이후 한국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드라마가 10대 20대의 젊은이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드라마 같은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노희경 :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을 장려합니다. 크게 보면 지구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0-20대 젊은층 드라마에 편중되어 있지만 가족중심의 일일드라마가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바닥이 날 것 입니다. 미국에서는 멜로는 30~40대를 겨냥으로 만들어 집니다. 한국에서 소비계층 이동으로 40~50대 겨냥은 성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10~20대 드라마가 각광받는 것처럼 보이나, 이후를 생각하면 중장년층 멜로드라마가 인기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리펑(상)

이드라마의 시청률, 시간대는 어땠는지. 드라마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전개였는데 한국의 남성들도 좋아했는지. 이 드라마를 더 좋아한 연령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젊은 층이 좋아했는지 궁금. 노작가는 미혼인데 남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묘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소재는 스스로 창작해낸 것인지 누구의 부

III. 내용기록



탁이나 방송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요.

노희경 : KBS드라마시터의 시간대에 방송. 그 시간대 평균 시청률은 5%였으나 시청률은 13%정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자중심에 포커스를 주었으나, 시청자는 여성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연령대는 분석표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인터넷에 젊은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젊은 층에 대해 시청기대를 안했으나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작가에 비해 중년멜로를 많이 그린 편인데, 그 이유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인 것과 저와 그들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제 자신의 질투 시기 모순 포장에 대한 제 습성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치카와 신이치(일)

유행가가 되리의 1부만 보아도 충분히 완결성을 가진 작품으로 볼 수 있었고 감명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부부. 일본에서도 드라마의 소재가 있습니다. 1부의 마지막 씬은 그런 상황을 환상의 세계로 도피해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각기 다른 의미에서 미소를 짓는. 매우 상징적인 마지막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부의 라스트씬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황혼이별 드라마는 서로의 길을 걷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노희경 : 이 드라마는 2부가 더 재밌습니다. 1부는 도입부라 지루했을 듯 한데요.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두 부부가 미안하다는 소리는 하지 않지만, 남편은 꽃뱀에게 상당한 돈을 뜯기게 됩니다. 여자는 선물과 전화로 정비소 남자에게 스토커로 몰리게 됩니다. 두 부부가 만나는 장면은 파출소. 서로 비루한 것을 확인하면서 물흐르듯이 넘깁니다. 남편은 직장버릇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비추고, 다시 부부의 집을 비추면 늦잠을 자는 것을 보이면서 끝납니다.

주창윤 : 토론이 끝나갑니다.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플로어에서의 많은 이야기에 감사합니다. 1부를 마칩니다.

III. 내용기록



2. Session 2 <중국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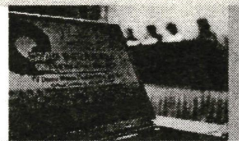
주창윤(사회)

경화연운은 중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여성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역사적배경에 멜러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한 드라마로 보입니다. 이러한 역사 멜러드라마 같은 경우 동아시아 TV드라마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등에서는 40~50부작이 넘는 역사멜러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장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 동시대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 또한 문화적 차이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이해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양샤오슝(북) : 중국은 6,70개 채널에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드라마, 일본드라마, 홍콩드라마, 대만드라마도 있습니다. 중국 14억 인구 거의가 TV를 시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드라마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가 아닐까 합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인구와 각기 다른 문화, 생활, 의식으로 인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장편드라마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수 천개의 드라마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 중 상당한 규모를 갖춘 제작사만도 몇 백개나 됩니다. 매년 1만편이 넘는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 우수한 드라마는 이웃나라에게 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장금, 명성황후, 일본, 싱가포르드라마도 중국시청자들이 즐겨본 작품입니다. 저희 구주음향제작사에서 만든 <천룡팔부>는 2004년 중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얼마 전 2005년 드라마 순위에서 <경화연운>이 8.8%시청률을 기록해 대상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최고 편집상 후보에도 올랐고, 최우수 제작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남우여우주연상, 최우수남우여우조연상, 최우수 음악상후보에 올랐습니다. 최종 최고시청률상, 최우수 제작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최우수 남우조연상을 획득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8.89%시청률의 의미는 다시 말해 1억 5천만명이 시청했다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방방송국의 재방송이나 VCD, DVD시청은 뻔 수 치입니다.

<경화연운>은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 임어당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해외에서 영문으로 집필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진실한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집필 당시의 중국은 외래의 침입으로 격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였습니다. 임어당선생은 당신의 문학의 힘을 빌려 중화민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영문으로 미

III. 내용기록



국과 프랑스에서 출판 되었고 중국에 소개된 작품은 번역본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드라마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것은 <경화연운>, 한국의 대장금, 일본작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완벽한 여성상을 드라마속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해방은 미주 유럽 지역보다 더욱 힘이 드는 일입니다.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여성의 아름다운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각국의 모든 작가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입니다. 중국은 저녁8시에서 10시가 TV시청의 황금시간대로써 시청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들이 드라마에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가 성공 하긴 위해선 먼저 여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김인영(한) : 중국에서는 영웅이 나오고 극적인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데 중국의 시청자들이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국드라마에서도 개인의 사소한 문제에 시선을 맞추는 2006년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드라마 제약시 표현이나 다른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 장면 시작 시 상황 혹은 행동에 대한 지문이 있는데 중국은 바로 대사가 펼쳐진다. 이것이 작가의 취향인지 아니면 중국에서는 이것을 연출의 몫으로 많이 남겨두고 작가는 대사 쓰는 데만 취중을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샤오슝(북) : 아주 많습니다. 드라마를 소재를 중심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가 역사극인데 신화나 민간설화도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가 현대극입니다.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는 드라마중 절반이상이 현대극입니다. 시청률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현대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부이야기를 다룬 내용, 즉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한 부부들이 엮여가는 드라마내용이 많은데 7%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배경, 상황, 동작 등을 고려하지만 대사를 위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은 작가에게 상세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문합니다.

미나미카와 타이조(일) : ‘경화연운’은 여성의 일생을 주 소재로 하는지. 현대는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진취적인 여성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에 반영할 때, 그 표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샤오슝(북) : 경화연운이 여자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시대상황을 그린 드라마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배경은 중국의 격동기이지만 당시에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시종일관 요목란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이 나옵니다. 원작은 19세기 말부터 1940년대까지 40여 년간의 시대배경이 펼쳐지면서 한 여성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III. 내용기록



중국의 역사극은 실지로 창작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현재 역사극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잃어가고 있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는 아예 역사극은 방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중국의 역사적 중대사건은 거의 모두 다뤄졌고, 어떤 것은 여러 차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임어당선생이 이 작품을 쓸 당시 1938년에는 방송국이라는 매체가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생 자신도 본인의 작품이 훗날 드라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선생은 당시 중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작품을 영문으로 집필했고, 스토리와 구성에 그다지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장동(북) : 저는 영화, 드라마 평론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화연운>에 대한 감상을 두 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드라마의 여성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임어당 선생의 원래의도는 <홍루몽>을 서방국가에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홍루몽>과 흡사한 <경화연운>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지는데 대해서는 중국의 여성해방운동 혹은 여성해방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1914년 5.4운동때 여성해방이 제창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추구했던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하나가 여성 스스로 남편을 선택하는 권리이고 또 하나는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연애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남녀 공히 집안일을 나누어 한다는 것은 중국전통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똑같이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할 권리가 없다면 여성해방은 불가능한 것이며 경제적 독립과 인격적 독립을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남성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권리는 현재 중국에서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여성들도 이러한 권리를 부여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어당 선생이 이 작품을 집필 할 당시만 해도 이런 권리를 갖기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작 각색부분입니다. <경화연운>은 이미 1990년대 대만에서 각색되어 드라마로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만에서는 인터넷상에 대륙에서 제작한 <경화연운>과의 비교, 논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이가 다소 많고 혹은 임어당선생의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90년대 대만판 드라마를 선호했고 젊은 층이나 원작을 읽지 않은 시청자들은 대륙판 신작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양효웅 작가는 이 작품에서 두 가지 정도 주안점을 두고 각색을 했는데 그 하나는 바로 현재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드라마적인 요소를

III. 내용기록



강화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주인공의 완벽한 여성적 캐릭터를 원작보다 더욱 부각시킨 것입니다.

오우쿤잉(홍) : ‘경화연운’의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 개인의 행복과 이상을 포기했는데 지금을 사는 여성이 볼 때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작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작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주연배우와 제작자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샤오슝(북) :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원작에서 표현하는 이미지를 살려나가는 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견 충돌에 대해서는 되도록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의견대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원작에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모든 원작이 재창작 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생략된다면 각색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일본 작가 분이 질문한 내용은 사극에서 픽션의 여지가 어느 정도 인가에 대한 것인데, 양작가께서 창작이 많이 되고 있다고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픽션을 가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샤오슝(북) : 중국대륙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극은 단순한 역사극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는 역사극, 예를 들면 <강희왕조>, <진시황> 전통시대극, 실존인물을 사실 그대로 그리는 전기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중대사를 다룰 경우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며 픽션을 섞지 않습니다.

그 밖에 그다지 중요성을 띠지 않는 이야기일 경우 구체적인 구성, 대화, 인물관계는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작성을 가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치로 계산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명성황후>의 경우 60%이상이 진실이며, <대장금>은 역사기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드라마적 허구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이 두 작품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III. 내용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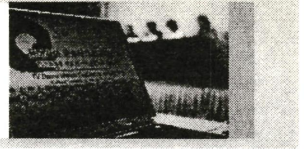
타다이도 다카이시(일) : 이 드라마 제작시 몇 대의 카메라가 동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드라마가 마지막부분에 앞으로 진행될 얘기가 플래쉬로 드라마 내용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샤오슝(북) : 고화질 카메라 3대를 사용했습니다.

구마가이 기자(일) : 이 작품을 보면서 펄벅의 <대지> 연상되었습니다. 펄벅은 자신의 작품내용과 실제 생활이 일치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양작가님의 작품세계와 앞으로 목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양샤오슝(북) :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한편의 장편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모두 자신만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인물, 표현하고 싶은 인물을 쓰고 싶어합니다. 똑같은 실존인물일지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냐면 작가가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는 인물로 재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실제생활에 가깝게 자신에게 익숙한 인물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III. 내용기록



3. Session 3 <일본드라마>

이종수 KBS 이사장 (인사말)

존경하는 신현택 아시아재단 이사장님, 박정란 학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님, 그리고 중국 이정재 영화드라마협회 회장님, 이시카와 일본방송작가협회 이사장님, 대만 비디오 드라마 부회장님, KBS를 대표해서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를 진작 저에게 부탁하셨더라면, 멋진 인사말을 준비했겠지만, 갑작스럽게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제환경서비스를 보면, 특히 동아시아가 이런 세계적 흐름에 앞장서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세계 미래, 아시아의 미래, 각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도, 실체는 이것을 방관하면서, 자기똥만 채기는 즉,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하다 보니, 의외로 손해를 보는, 헐리우드 문화에 동양문화가 밀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 여기에 계신 분도 속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류의 미래, 동아시아가 인류가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앞으로의 세상을 열자는 취지로 이번 모임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택 이사장님께 축하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숨은 작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보이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실 겁니다. 방송, 드라마에 대해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만, 뒤에서 애쓰는 건 바로 여러분,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우수하기도 하고, 해악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각양의 경험을 교환하겠지만, 적어도 KBS공영방송의 책임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는 대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품 활동보다, 어떡하면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손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정치가, 기업가보다 앞서가는 것이 작가라는 것을 세계의 역사 또한 그러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의 한운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라디오세대’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을 키웠고, 그런 상상이 70~80년대 한국 고난을 거치면서, 2000년대 한국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그 당시 힘들고, 외로웠지만, 언젠가 밝은 미래가 오리라 생각하면서 생활해왔고, 이런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모임에 찬사를 보내면서, 저희 방송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작가님들을 극진히 모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립니다. 감

III. 내용기록



사합니다.

주창윤 : 지금부터 [야마토나테시코]라는 작품을 감상하시겠는데요, 이 작품을 쓰신 나카조노 미호 선생님은 [뉴타운임시경찰서], [점치는 여자], [라스트 러브], [동경타워] 등 일본에서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집필하신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작품은 한국에서 [요조숙녀]라는 작품으로 번안이 되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로 중국어 자막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중국 참가자분들께서는 대본집 17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라마 감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창윤 : 어제는 [유행가가 되리]나 [경화연운]과 같이 주제의식이 강한 드라마였다면, 오늘은 가벼움이 돋보이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난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사쿠라코’와 실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오스케’의 엇갈린 사랑을 찾는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선 이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트렌디 드라마’라고 부르는데요, 1980년대 이후 이런 트렌디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마토나테시코]의 작가이신 ‘나카조노 미호’ 선생님의 발표시간을 가지고, 4분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토론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최연지님, 대만에서 오신 루오차이지엔님, 중국에서 오신 루홍스님, 일본에서 오신 요코다 리에님 순으로 토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발표시간은 15분, 토론은 10분씩으로 하고, 통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작가 분께서 대답하실 것은 하시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카조노 미호(일) :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바다를 헤엄쳐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좋은 친구들 만나서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정말 자신이 없네요, 여러 번 부탁드렸지만, 결국 앉아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트렌디 드라마라고 하는 것만 쓰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늘 러브스토리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본에선 러브스토리를 만두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애는 장애가 없으면, 타오르지 않은데, 그 장애물이 부모가 반대를 하거나 하는 모두가 쓰고 있는 것, 아니면, 원거리 연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저도 적어봤지만, 이것은 다 해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 그럼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장애물로 하는 그런 드라마는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부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여성, 악역이죠. 과연 악역을 주인공으로 하면 어떤 러브스토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녀의 못된 캐릭터,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한 사랑을

III. 내용기록



찾아가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런 러브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이런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까지 프로듀서나 감독들도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가 화를 내진 않을까, 혹시나 반감을 사진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는 것이 어떨겠냐고 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어느 영화 대사 중에 ‘초콜렛 상자는 열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라는 말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해봅시다.’ 라고 완고하게 드라마 제작을 부탁했고, 배우들에게도 힘든 역할이지만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런 드라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후, 우려와는 달리 일본 여성들에게 의외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나도 항상 생각하고는 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줘서 고맙다.’ 라든지, ‘사쿠라코는 왜 이렇게 솔직한가.’ 라는 식으로 시청자들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일본 여성은 전부 좋은 사람으로 보여 지기 위해서, 가식을 떨고, 모두 귀엽게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차갑네요라는 이야기를 해외 남성들에게서도 자주 듣지만, 이 드라마는 그러한 여성들의 공감을 얻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률 이야기를 하면, [오신(おしん)]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여러분은 전혀 다르지 않은가, 일본 여성은 전부 이런 거야라고 질려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신]이라는 드라마 이래 여성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드라마로서 최고 시청률 37%를 달성했습니다. 작년, 여기에 앉아계신 ‘요코다 리에’씨의 작품, [고쿠센]이라고 하는 정말 정의감이 강한 여선생님의 이야기에 작년에 1위 자리를 뺏겨서, ‘사쿠라코’는 지금 2위이지만, 5년간 동안은 여자주인공으로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일본 여성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많았는데요, 해외의, 아시아의 작가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창윤 : 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제 좌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지 작가님께서 하시겠는데요, 최연지 작가님도 트렌디 드라마 많이 쓰셨죠? 네, 한 5~10분정도 토론 부탁드립니다.

최연지(한): 우선,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대본도 재밌게 봤고요, 제가 1980년도에 몇 달간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땐 일본어를 전혀 몰랐지만, 매일 TV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아침드라마인 [오신(おしん)]도 봤고, [화요서스펜스극장]이라는 드라마도 재미있게 보고, NHK드라마 [실크로드]라는 작품이 그 당시 유행했었는데 재미있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제 중국의 양 선생님께서 중국은 집안의 가구 배치에서부터 TV가 중심이 되어있을 정도로 TV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경교외에 살았었는데요, 다다미방 위에 코타츠 옆에 TV가 항상 있었습니다.

III. 내용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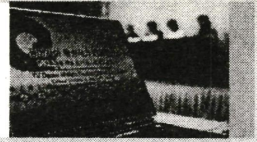


그래서 일본사람들도 TV를 좋아한다고 느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일본이 교통비가 비싸서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유하지만, 각자의 개인의 집은 좁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고, 가족끼리 코타츠에 모여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경제적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로맨틱 코미디이긴 하지만, 돈과 연관돼서 행복을 주제로 한, 여성드라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성의 해방이라든가,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러한 것이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뿐만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건 행복의 필수 조건이겠죠. 다만, 드라마 여주인공인 ‘사쿠라코’는 경제력 향상을 얻는 방법으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자기가 힘들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사쿠라코’는 어렸을 때 가난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여성으로 되어있지만, 가난의 상처를 받지 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사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에서부터 이러한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관은 아닙니다. 예쁘고, 착한 여성은 꼭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나옵니다. 또, 가난한 나라는 있어도, 가난한 왕자는 없습니다. 왕자라는 것은 항상 권력과 부의 상징이죠. 지금도 돈 많은 남자를 ‘백마 탄 왕자’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겠죠.

불쌍하고 예쁘고 착한 신데렐라도 결국 왕자를 파티에서 만나고 선택이 되고, 유리 구두를 놔두고 오죠. 그것은 어제 보았던 [유행가가 되리]의 젊은 여배우는 스카프를 떨어뜨리고, [야마토나데시코]에서는 여주인공이 커피를 쏟는 것, 이것이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이 든 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도 잠에 들었다가 왕자의 키스에 깨어나죠, 반드시 왕자의 키스여야 합니다. 만약에 거지가 키스를 했다면, 깨어나서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겠죠, 왕자가 키스할 때까지. 즉, 여성의 아름다움과 착함, 그런 미덕은 남성의 부와 권력이라는 것과 반드시 교환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또, 인어 공주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지만, 왕자만을 구해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요. 산타와 결혼한다면 매일 선물을 받을까요? 아마 선물을 받기보단 준비하기 바쁠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도 그 아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제 [유행가가 되리]라는 작품에서 강남에 4층짜리 빌딩을 가진 남편이 아내가 미국 가는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빈손으로 나가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경제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인에게 경제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위기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도, 남편이 돈이 없

III. 내용기록



어질 수가 있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모두 운명에 맡기는 사고방식이 옛날의 동화에서부터 익숙해져있는 왕자님을 만나는 이념의 가치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산타의 선물을 받기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에게 선택이 되려면, 첫째, 예뻐야 됩니다. 그것이 부와 미모와의 관계인데, 지금도 그것은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쁜 여자가 못생긴 남자와 걸어가면, 주위 사람들이 “저 못생긴 남자는 굉장히 부자일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못생긴 여자와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저 못생긴 여자는 틀림없이 부자일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못생긴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걸어가면, “둘은 서로 정말 사랑하는 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난한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절대 돈이 목적은 아닐 거니까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성은 경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선 부자와 만나서 행복해지려는 소극적인 행복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경제력을 향상시켜서 행복해지려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적극적인 행복을 취하는 것이죠. 소위 여성의 성공스토리가 유행할 땐, 부자나 왕자를 만나는 성공이 아니라, 자기 커리어의 성공을 뜻합니다. [대장금]이 좋은 예이죠. 이런 드라마에는 반드시 전문직 여성이 등장합니다. [대장금]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요리사였고, [올인]의 여주인공은 카지노 딜러로써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사랑도 그런 자기 향상의 노력 속에서, 그 노력에 감동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협조해주는 남자와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굳세어라 금순아]에서의 금순이는 남편을 잃고, 자기 일에 도전해서, 또 아이를 키우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씩씩한 여성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은 현실에서 플러스해서, 어떤 바람직한 환상, 비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대리만족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그런 커리어우먼이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한국의 여성들이 거의 실업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 거기다가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여성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성 스스로 바라고 있는 어떤 희망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역할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주인공의 캐릭터보다는 가치관의 문제겠죠.

이 드라마의 ‘사쿠라쿠’에게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은 그냥 그림이고, 남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일 뿐, 어떤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국에서 [요조숙녀]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그 주인공 역시 스튜어디스였고, 김희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가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그

III. 내용기록



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조숙녀’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옛말이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과거 동화 속의 여성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으면서, 옷만 현대적으로 입은 옛날 드라마 같은 느낌을 가졌었어요. 걸모습은 화려했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의 주제인 ‘아시아 TV드라마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승리라는 것은 아시아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된 것이니까 어떤 문화의 동질성이라면,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든가, 결혼, 경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일본 드라마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비전은 어떤지에 대해 작가로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윤 : 네, 고맙습니다. 나카조노 미호 선생님, 간략하게 대답 좀 해주시죠.

나카조노 미호(일) : 제가 어렸을 때 커리어우먼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유행했습니다. 패션잡지 등에서도 캐리어우먼이 갑자기 많이 등장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버블경기가 시작되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즘 여성들의 결혼관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꼬집고, 비판, 풍자하기 위해 이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방영 후, 전부 ‘멋진 사쿠라코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고쿠센]이라는 드라마는 여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로 인해 여성들의 가치관이 겨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안심했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주창윤 : 네, 다음으로 중국의 루홍스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루홍스(북) : 먼저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해에서 왔고, CCTV6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99년부터 짧은 단막극을 만들기 시작해서 700편의 단막극을 제작했으며, 현재는 10부작 이상의 시리즈 물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저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의 배경이 동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경부터가 문화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고, 현재의 시간과 전혀 낯설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의 동질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에서 현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일찍이 겪었고, 중국은 현재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세 나라가 모두 겪었기 때문에 각국 문화는 서로 동질적인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전통

III. 내용기록



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보전할 가치가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 이후, 현대인의 마음은 과연 평온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층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가치관이 진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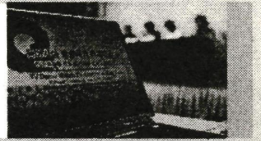
현대화는 물질적으로 돈과 재물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여성들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가치관의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성공하려했지만, 현재는 남편을 통해서 얻는 편이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쿠라코’는 모순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감정이나 하는 문제로서 말이죠. 저는 이 줄거리와 끝부분을 보고나서 전통적 가치관과 경제적 가치관의 모순 갈등 구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3국의 TV드라마에서 모두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통을 줍니다. ‘사쿠라코’는 귀엽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도덕적 선을 깨뜨리진 않죠. 일본 젊은이들이 ‘사쿠라코’를 마음에 들어 한 이유는 아마도 그녀가 솔직하게 귀엽게 표현되어져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작가의 기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일상생활을 활발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보면, 우리들의 생활이 매일 즐겁고 활발하게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코미디 요소를 표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나카조노 미호’작가님은 철학을 잘 결합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충분히 코미디 요소를 가미해서 코미디와 일상적 철학적 요소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행동 즉, 논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반면,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성격에 비추어서 모순을 겪게 함으로써 해학적 요소를 가미시켰다고 보여 집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큰 코미디요소는 아마도 ‘사쿠라코’의 허영의 갈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위장해서, 가식과 기만으로 표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쿠라코’의 가식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러한 가식과 욕심이 ‘사쿠라코’ 그녀의 얼굴에서 나타나며, 그녀의 갈등 또한 우리들, 즉 시청자의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로 작품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매우 세심하게 과거의 기억까지 연결시켜, 인물의 행위에 합리화 시킵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 가치관 수립을 위해 중요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사쿠라코’도 어머니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하는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과거 가난과 어머니의 말씀, 이 과거의 기억이 ‘사쿠라코’에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 기억으로 인해 그녀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치밀하게 구성을 해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주인공인 ‘오오스케’도

III. 내용기록



첫사랑의 아픈 기억이 중간 중간 삽입됨으로써, 인물행위의 합리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드라마에 대한 평가는 이것으로 하고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야마토나데시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단막극이 상업적 가치가 없어서 제작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연속극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20회 이상의 드라마가 저녁 황금시간대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유행가가 되리]라는 단막극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단막극의 투자를 어떻게 하고, 그 상업적 효과를 어떻게습니까?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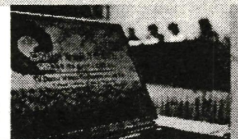
주창윤 : 네, 답변해주시죠.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야마토나데시코]의 의미를 묻는 것과 일본에서의 단막극의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입니다.

나카조노 미호 : 먼저 [야마토나데시코]의 뜻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한국의 타이틀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말은 일본 여성의 정초한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매우 정숙한 여성을 칭하는 말입니다만, 현재 일본에서 이런 여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나데시코’라고 하는 말도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자고 생각했습니다. 1회만 보면, 대체 이 주인공의 어디가 요조숙녀란 말인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최종회까지 보시면,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쿠라코’가 가난한 ‘오오스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품을 쓰고 난 후 정말 제목을 ‘야마토나데시코’라고 붙이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편드라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본에서는 2시간짜리 드라마를 주 3개 정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드라마가 아니라 인물이 매회 죽는 서스펜스 드라마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역시 시청률을 신경 쓰지 않고 쓸 수 있다면, 정말로 멋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지금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NHK에서도 그렇습니다. 전 어제 노희경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기획이 통과하기 힘들고, 말이 조금 그렇지만, 평범한 이야기를, 아마 제가 이것을 기획서로 써서 냈다고 하더라도 절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희경 작가님이 이러한 도전을 하신 것을 보고, 어제 파티에서 술을 마시면서 반성했습니다.

주창윤 : 제가 덧붙이겠습니다만, 요즘 한국에서도 단막극이 ‘KBS 드라마시티’, 이것만이 지상파 3사중에서 방영되고 있는 단막극입니다. 그리고 일부 창사특집극이 2~3부작 정도로만 제작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과 같이 단막극에 관한 관심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드라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일본의 요코라 리에 선생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III. 내용기록



요코다 리에 : 저는 이 드라마가 방송되었을 때 그 때의 시청자로서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시청자였던 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드라마가 방송된 것이 후지 TV인데요, 후지 TV방송국에서 월요일 저녁 9시에 방영하는 드라마는 이 방송국의 간판 드라마입니다. 그 시간대에 방영하는 드라마는 시청률 최고를 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톱을 차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일본 여성들에게서 굉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월요일에 드라마가 방영이 되니까,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은 지하철 안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성들은 어제 ‘사쿠라코는 어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소라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쿠라코’가 왜 이렇게 시청자를 끌었을까하고 생각해 보면 역시 지금까지 이런 여주인공의 성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야마토나데시코’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주인공은 돈을 좋아하다는 것을 전혀 조금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세세한 거짓말은 하고 있지만, 돈이 너무 좋아서 부자와 결혼하겠다는 목표가 너무 명확해서 그것이 먼저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빈축을 사면서도 그대로 계속해나가는 솔직함이 꽤 충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본 문화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너무 좋아서 부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사쿠라코’는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고, 원하는 것을 자신이 얻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는 것이 기본적으로 충격으로, 일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악역이 미움을 받는 캐릭터이지만, 그녀의 결점이 확실하게 우리(시청자)에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 나쁜 부분이 인간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캐릭터들 또한 모두 사랑할 수밖에 없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쿠마케’의 거실 신은 매회 기대했습니다. 모두 뭐라고 말할까, 어떤 음식이 나올까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실 신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오스케’가 처음 ‘사쿠라코’를 만나는 장면의 ‘오오스케’ 표정도 정말 좋았고, 스튜어디스들의 대화는 일상적인 일본 여성들의 대화내용인 옷이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후반 전개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하지만, 부자와 결혼하지 않고, 가난한 ‘오오스케’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스토리로 되는데요, 이런 후반 전개도 매우 기분 좋게 납득시켜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의 일하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혼에 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부터 여성도 남성과 같은 조건으로 남녀차이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위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일에 책임을 지고 지위는 향상되고, 돈도 벌고, 이러한 것들이 여성의 행복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그 쪽도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이 불변적으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여기서는 처음에는 돈이 행복의 조건으로 나왔

III. 내용기록



지만, 최후에는 사랑을 선택하는 형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리메이크 작품이 많습니다. 대만 드라마 중에 F4라고 하는 아이돌을 탄생시킨 [꽃보다 남자]라는 학원 드라마는 일본 만화가 원작입니다. 이것이 대만에서 드라마화시켜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도 대만판의 F4가 나오는 드라마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DVD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 애기로 넘어서 일본에서 89년도에 방영했던 연속드라마 중에서 젊은 여성이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드라마가 있었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히트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보면,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세한 차이는 모르지만, 반대로 원작이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해서 만드는 것이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부분을 바꾸자고 하는지 등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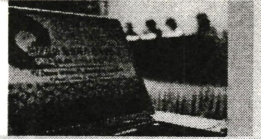
주창윤 : 특별한 대답이 없으시면,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만의 루오차이지엔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루오차이지엔(대) : 드라마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에 대해 동감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행가가 되리], [경화연운], [야마토나데시코]. 이 작품들을 보면서 드라마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와 책, 어른이 되어서는 드라마를 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를 보며, 선과 악을 판단해왔습니다. 이와같이 드라마는, 마음을 표현하고, 가치관 수립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쿠라코'는 부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의지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처음부분만을 보고 이 드라마를 오해했습니다. 일반 트렌디드라마의 여주인공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려면, 많은 시청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드라마 제작도 줄어가고 있고, 재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인기를 얻고,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작은 비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렌디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는 전반적으로 각본이나 연출에 대해 심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표면이나 내면 혹은 감독이나 작가간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창윤 : 네, 일본에서 감독과 작가사이의 작품을 계약에 관한 의견 교환 문제라든지 제작에 관련된 일부를 답변 해주시죠.

III. 내용기록



나카조노 미호(일) : 드라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제작 중단을 요구하셨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감독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력도 있고요. 프로듀서가 말하는 대로 쓰게 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어제도 싸울 듯이 TV방송국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은 한국에서는 주2회 연속드라마를 방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만, 역시 김치나 돼지고기 등을 드셔서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에 1개를 만드는 것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요코다 씨는 어떠신가요? 1시간짜리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작품을 쓰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나요?

요코다 리에(일) : 이것도 역시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에 1화 완결의 연속드라마는 사실 다른 분들과 의견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연속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드라마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일까요?

나카조노 미호(일) : 저는 일본에서 가장 늦게 작품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의 대답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연속드라마가 3개월 정도인데이, 2개월 정도 전부터 각본 준비에 들어가고, 1개월 동안은 감독이 정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최후에는 쫓기면서 일이 진행되어가는 식입니다.

주창윤 : 네, 고맙습니다. 나와 주신 청중분들 중에서 두 세분 정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과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수(한) : 예, 한국방송작가 최인수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간단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작품을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 일본드라마는 희노애락이 배어있다 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라마를 보고 제가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5월달에 일본 동경에 가서 ‘한일 시나리오 작가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점을 많이 거론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가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요점은 안으로 숨어있는 감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강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일본 여성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한국드라마를 보면, 그 감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표현방식이 후련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찌면 신선하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생활 정

III. 내용기록



서가 다른 표현형식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일본 드라마의 경우 리얼리티를 중요시한 나머지, 극적효과를 가급적 희석하고, 한국 드라마는 극적 효과를 위해 적극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합니다. 양국의 좋은 점은 서로가 택해야할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일본드라마는 보다 인간적인 것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의 절제미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준 드라마 [야마토나데시코]는 제목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인식했습니다. 2차 대전이 종반에 이르렀을 때, 여고에 다니는 일본의 여성들이 공장이나 전장(戰場)에 내몰리면서 독전국으로서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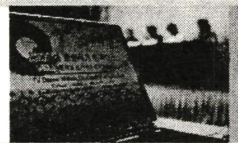
오늘 보여주신 [야마토나데시코]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이 그 의미를 잘 소화하고 2000년대의 트렌디 드라마로서의 진화된 이야기로서 이해합니다. 결말부분에 2000년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잊어버리고 있는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욕심을 부린다면, 막판 뒤집기를 인간의 본성을 담은 보다 강렬한 에피소드를 제시했다면 더 큰 감동과 여운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욕심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신 일본의 ‘이치가와 신이치’ 작가가 1980년도에 쓴 [봄의 속삭임(春のささやき)]이라는 작품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절감각을 살려서 두 젊은이가 사랑을 속삭인 이야기였는데 압권이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드라마와도 좋은 대비가 되어, 일본드라마의 폭넓은 면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모든 일본 작가분들의 권투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윤 :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나카조노 미호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카조노 미호(일) : 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받아서 기쁩니다. 아까 한국의 각본가 여러분들께서 “사쿠라코는 나카조노 씨와 닮았네요.” 라는 말을 들어서, “저는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사실은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에게서도 “나카조노 너 자신이네, 캐릭터랑 꼭 빼닮았잖아.”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항상 못된 사람만을 쓰고 있네요, 어제 양 선생님께서 쓰신 여주인공과 같은 느낌의 여성상을 캐릭터로 해서 써보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쓸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항상 인간의 못된 부분이나 결점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씁니다. 저의 드라마에도 전부 모델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뵈 분들 중에서도 김 선생님이라든지 모델로 하고 싶은 분들, 강한 느낌의 여성분들이 많아서 일본에 돌아가면, 여러분을 모델로 해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으니, 기대해주십시오. 정말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III. 내용기록



4. Session 4 <대만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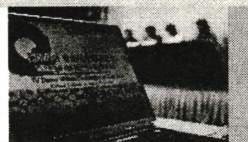
차이원지예(대) :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 저의 작품을 상영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또 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의 동료 진만령 작가와 이창민 작가도 이번 회의에 초청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국 작가들이 만나서 서로 배우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의 협력과 교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오늘의 이 회의는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참석한 세 나라는 서로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관도 비슷하여, 상호 교류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진만령 그리고 이창민 작가는 저와 함께 판관 포청천을 집필 하였습니다. 오늘 상영된 판관 포청천은 1993년 작품으로 화면이나 음질이 그리 깨끗하지 못합니다. 판관 포청천은 1993년에 제작되어 1994년까지 236회를 방송하며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드라마 판관 포청천의 내용과 드라마 속 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관 포청천의 본명은 포증이며,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판리 입니다. 그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서민을 위해 악에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백성을 위해 일하고 밤에서 저승세계의 간악한 무리와 맞서 싸운다고 합니다. 판관 포청천의 드라마틱한 소재로는 용 작두, 개 작두, 호랑이 작두로 고관대작이든 서민이든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 작두아래에서 죽음을 맞이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줍니다. 판관 포청천은 오랜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동남아에도 수출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방송된 철미안은 판관 포청천의 1회 방송 작품으로써 처음에 저와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다른 한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 작가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TV 드라마로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국에서도 이 드라마를 방영해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1,2편을 시험 방송한 이후 결정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드라마를 집필할 당시가 설 연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철미안을 집필하였고, 또 제작사에서도 내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작가로써 창작능력을 발휘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전에 대만 TV 프로그램은 제한과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창작력을 잘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내우외환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정권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학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힘도 있으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입니까? 바로 작가 입

III. 내용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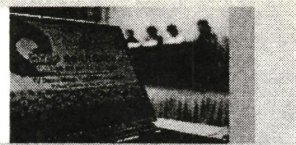
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길로 국민들을 유도하기 위해 작가들의 창작력을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문학의 대부분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작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교육을 강조하고 좋은 말로 사람들은 설득시키는 작품을 쓰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드라마는 중국 통치자에 의해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수단이 되어 창작의 자유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공산당과 국가의 관계를 강조하였으며, 대만은 중화인의 선조 문화를 강하여 작가들의 창작의 자유는 점차 소멸 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잠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날 밤 광란의 밤을 보내고 황제를 향한 그들의 비장한 마음을 미합대에 자폭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폭하기 전에 외친 한마디는 ‘일본 천황 만세’가 아니라 ‘엄마 죽고 싶지 않아!’라는 아닌 인간의 내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드라마가 일본에서 방송되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만에서는 절대로 방송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와, 하인이 주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신중인 생면부지의 충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하는 등의 충, 효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셔야 한다는 등 가정윤리와 전통수호라는 이념을 가진 드라마가 계속해서 방송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만 TV프로그램 관할 부처에서 TV 프로그램을 제한 하는 방법으로 10년 전에는 모든 TV 프로그램이 심의를 통과해야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TV 드라마에 범죄의 과정과 낙태, 경찰을 때리는 장면 등이 모두 상영 금지 되었습니다. 그 후 이런 제한은 점점 많아져 웃지도 울지도 못할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한 유머코너의 한쪽 다리를 잃은 장군을 보고 부하가 울자 장군이 “바보, 울지 마라, 이제부터는 한쪽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유머가 대만에서는 ‘바보, 울지마! 국가와 인민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데 이런 다리 한쪽쯤이야 무슨 대수라고!’라고 바뀌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미국식 유머가 대만 심의에서 걸리기 때문이지요. 이런 유머는 그 당시 TV 프로그램에 대한 대만의 심의를 그대로 보여 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의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시나리오, 문장, 단어 하나까지 심의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TV 드라마 창작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시청자의 눈물을 자극하고, 충효, 절개를 포장하여 순조롭게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작가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심의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 이러한 심의제도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방송국 자체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대만 드라마는 이미 기존의 습관에 길들여져 이러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판

III. 내용기록



관 포청천은 각본부터 표현까지 이러한 변화를 받아 들였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드라마의 내용뿐 아니라 드라마 전체를 통해 이러한 현대식 이념 표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판관 포청천은 수 많은 작가가 각본작업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아름답게 표현해 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드라마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형식으로 굳어진 드라마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 시청자들은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유선TV가 탄생했으며, 대만 드라마 시장에서는 예술성이 비교적 낮고 원가도 낮은 트렌디 드라마 많이 제작되었고, 국가에서는 비 상업 국영방송을 설립하여 시청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 주최측에서 대만 드라마의 특성과 아시아 문화의 관계에 대해 발표를 부탁했으나 저는 주최측의 의도에 최대한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일부는 이 회의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창윤 : 한국에서도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민족사관을 정립 시키는 등의 이러한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정부도 이러한 제한을 가한 적이 있으나 시장의 수요로 이러한 것이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김은희(한) : 10년 전 KBS에서 방송한 판관 포청천의 인기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작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작문 숙제를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는 표현력과 구성도 좋은데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저는 판관 포청천이 작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충, 효, 삼강오륜등과 선악의 싸움 등을 강하고 섬세하게 전개 하였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보상을 받으며, 악인은 천벌을 받는다는 정의로움을 나타내었으며, 부패한 권력에 강하게 맞서 포기하지 않는 포청천의 캐릭터에 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판관 포청천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판관 포청천의 리메이크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장희빈>이 가장 많이 리메이크 되었는데, 시대에 따라 그 주인공의 캐릭터와 사람들의 요구가 서로 다릅니다. 만일 다시 포청천을 집필하게 된다면 현대적인 포청천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게 될까요? 또한 충효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쓴다면 지금도 시청자들이 좋아할까요?

차이원지예(대) : 포청천은 중국인이면 거의 다 아는 스토리를 각색한 것으로 여기에 저는 생명가치의 존엄과 욕망을 가미했습니다. 특히 동양 여성의 한과 여성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수천 수백년 동안 중국여성은 남편을 대신해 자신을 표현했

III. 내용기록



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여성은 때론 강인하고 불굴의 용기를 지녔습니다. 언젠가 캐나다에 이민 온 동양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 요.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는 아내의 몫으로 되어 이리저리 시간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는 것이죠. 본국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땀땀거렸을지도 모를 남성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일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고 점점 사회에 적응해가며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고 경제적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남성의 우월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우울증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여기서 동양여성들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빛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라다 다마코(일) : TV,라디오작가 생활 20년 등 다방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선TV로 포청천을 시청하였고, 한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 유선TV방송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드라마의 주제는 대부분 권선징악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TV드라마는 흑백으로 화면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촬영환경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쿠가와 막부시대나 에도시대에 포청천과 비슷한 실존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작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생하는 사건과 가치관에 대해 포청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원지예(대) : 포청천은 경극으로도 제작되어 노래까지 모두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각색됐는지도 알기 때문에 제작하는 입장에서 의 도덕적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또한 창작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라다 다마코(일) : 일본은 병어리 맹인등 이런 단어는 현재 사용금지단어인데 중국의 경우 각본을 짤 때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요.

차이원지예(대) :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어가있지만 지금까지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라다 다마코(일) : 시청률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1분마다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시청률변동에 따라 등장인물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청률

III. 내용기록



을 높이기 위해 드라마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생겨났고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면 상관없지만 시청률은 중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 시청률을 염두하고 제작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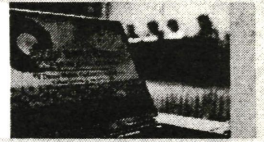
차이원지예(대) : 대만의 경우 완벽한 준비를 한 후,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처하는 임기응변 능력이 강한 편이죠. 작품제작시 팀을 조직하여 회의를 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노선을 바꾸기도 하고 시청률에 따라 변경도 합니다. 대만은 아시아와 달라 제작도중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찌아홍위엔(상) : 오늘 발표해주신 채선생님의 작품 포청천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채선생님께서 만드신 포청천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선생님과 같은 대만 작가님들의 임기응변은 저와 비교해보면 저는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포청천은 13년전의 작품으로 이 드라마의 쓰여진 방식과 해석, 표현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저와 상해대표들은 오늘 아침식사를 할 때 오늘의 TV드라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 중, 일 3국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중국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을 무엇일까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중국 작가들은 왜 한국이나 일본 드라마가 중국드라마 보다 인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와 가장 많은 제작사와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수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의 드라마가 왜 한국의 드라마 보다 못한 것일까요? 3년 전 한국 연출자 협회 이사장님께서 중국기자에게 ‘한국의 감독들은 단 한가지만을 잘하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제 이 회의에서 상영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상해 작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저도 한국과 일본 드라마의 성공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포청천은 중국 국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제가 채선생님에게 이렇듯 존경과 축하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주제로 기적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를 만드셨다는데 있습니다. 포청천이란 드라마를 만든 방송 시스템에 있어서도 포청천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부작 어린이 청천이 방송된 이후 어린이 포청천을 제작자를 만나 어떻게 3부작 어린이 포청천을 제작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를 위한 3부작 어린이 포청천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탐정 코난을 보고 어린이 포청천을 제작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3년간 역사극에 대한

III. 내용기록



창작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포청천을 제작하게 되었고 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도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만 드라마 ‘황제의 딸’ 중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황제의 딸’은 대륙 드라마의 시장화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장금과 대만의 황제의 딸, 포청천 등은 전개와 표현이 아주 뛰어난 드라마입니다. 상해의 예술평론가는 ‘대장금’을 통해 한국의 역사극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물을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많이 뒤져 있습니다. 보통 역사극을 다룰 때는 황제나, 장군, 유명인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그들의 시각에서 집필을 하는데, 대장금의 주인공은 고관대작이 아닌 비천한 일반 백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 드라마의 차이점입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대만 드라마 황제의 딸도 황제의 권리에 도전이라는 점에서 이와 비슷합니다. 시청자들은 1회를 보면서 이러한 점을 느꼈습니다. 황제와 공주와의 관계를 풀어내는데 여자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했고, 이 부분이 일반인들에게 어필하여 흥미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중국 대륙과 대만의 사고 방식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홍콩 TV에서 판관 포청천을 보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드라마를 썼고, 많은 역사극을 썼습니다. 지금의 TV드라마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호텔에서 대만, 중국과 함께 촬영한 ‘황제의 딸’등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중국 드라마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중, 일 3국의 방송이 협력하여 새로운 세기를 맞을 것이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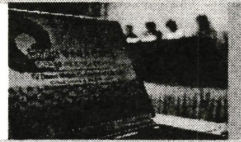
차이원지예(대) : 선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중국 드라마는 배워야 할 부분도 많고 아직 그 여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천민을 묘사해 흥미를 끌었다면, 중국의 역사극은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며, 고관대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는 아름다운 여인을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장금은 일부 헐리우드의 인기 영화처럼 화려하고 높은 신분을 묘사하지 않고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 질문]

Q : 언론이 통제된 국가에서 자신들의 창작자유를 획득한 것에 감동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비디오 리서치에서 시청률이 조사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청률은 측정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이원지예(대) : 중국에도 시청률 조사회사가 있습니다 다소 오차가 생기기도 하는

III. 내용기록



데 남쪽과 북쪽지역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기술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 대만은 처음에 상용TV방송국으로 시작하다 90년대 이후로 공영TV방송국으로 전환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시청률의 압력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원지에(대) : 대만의 3대 유선방송국은 모두 광고수입으로 경영하고 있기에 영향력을 받지만 공영방송국일 경우 간섭 받지 않기 때문에 창작 면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유리합니다.



III. 내용기록



5. Session 5 <총평>

‘TV 를 통하여 본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에 관한 이틀간의 토론에 대하여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리서치를 통하여 나타난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국가 순위가 1 위인 영국에 이어 한국이 2 위, 그 외의 10 위 내 동아시아 국가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동아시아국가들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방송편성을 차지하는 드라마의 비중 또한 높은 편입니다. 시청자와 제작자들의 드라마에 대한 관심에 의하여 이와 같은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입니다.

박정관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1 회를 맞아 정성스레 준비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어 매우 기쁩니다.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었으나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시의 질문 중 하나였던 한국 드라마의 제작과정은 크게 공중과 방송에 의한 원고청탁과 프로덕션(제작사)의 청탁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중과 드라마 제작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프로그램이 결정된 후 작가에게 청탁을 합니다. 작가는 시놉시스를 작성하여 연출자와 의논한 후 원고를 작성합니다. 다음 단계로 배우 캐스팅을 하게 되고 방영 1 달 전부터 촬영에 돌입합니다. 드라마 제작에는 작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만 한편의 드라마는 작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닌 감독, 배우 등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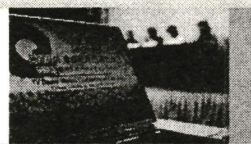
신현택 아시아문화사업교류재단 이사장

모든 방송작가들께서 이번 행사에 진지하게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모체가 되어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 콘텐츠의 바탕은 작가들의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방법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혼합적인 방법으로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제작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작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훌륭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치가와 신이치 일본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제 1 회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의 주제는 동아시아 TV 드라마의 유의성, 동질성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하여 각국의 문화, 관습 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화를 바탕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한국, 일본의 신화를 비교하여 모두 같은 이야기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III. 내용기록



나는 이상적인 여인상을 생각했을 때 중국대륙에서 백제, 신라를 거쳐 일본에 전해진 관음보살상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이상적인 여인상이 동아시아 각국을 연결해 주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동질성은 TV 드라마는 여성시청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작가로서 중국, 한국과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은 TV가 실현됨으로 초래되는 TV 드라마에 의한 동일성입니다. 방송작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큼니다. TV 미디어를 매체로 방송작가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리펑 중국상해방송작가

중국에는 ‘백년의 인연이 있어야 한 배를 탄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만난 것이 대단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부산을 방문하여 음식, 풍경, 사찰 등 좋은 느낌을 받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아시아국의 드라마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준비에 대한 기여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작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의를 가지고 집필하는 자세입니다. 동아시아인으로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여 좀 더 나은 작품을 제작하여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탈리아첸 대만방송작가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해 준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제작은 동아시아국 상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 드라마는 홍콩, 일본, 한국 순으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실생활의 묘사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주제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거나 또는 유쾌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활의 만족에서 정신적 만족으로 발전함으로 가족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영향은 문화, 언어뿐만 아니라 차세대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개방된 시각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문화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시간의 관계는 역사의 공유로 간접적으로 드라마 안에서 표현됩니다. 공간의 관계는 동시대성의 공유로 직접적으로 드라마 속에서 표현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동시대성의 공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미디어, 드라마 제작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각론적인 수준의 논의로까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IV. 홍보결과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TV Drama Writers Conference of East Asia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Cultural Similarity of Asia in TV Dramas"

IV. 홍보결과



1. 언론보도자료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 보도참고자료		
재단 관련 및 출장취재 문의	담당자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최기영 대외협력팀장
	연락처	Tel. 02-7373-520 / Fax. 02-7373-525 E-mail. choiky@ikoface.com
자료요청 및 부산지역 취재의뢰	담당자	홍보담당 이현주
	연락처	Tel. 051-740-7723 / Fax. 051-740-7727 E-mail. julie@ioconvex.com
참고	*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취재를 하실 기자님은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저희가 부산일정을 제공해드립니다.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 개최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가 오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방송작가 70여명이 함께 한다.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는 국·내외 유명 방송작가들이 참여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품들을 감상하고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한국 드라마로는 ‘굿바이솔로’, ‘꽃보다 아름다워’, ‘거짓말’ 등 작품성과 매니아층의 인기로 유명한 드라마작가 노회경의 ‘유행가가 되리’가 상영 선정되었으며, 중국드라마는 ‘양효웅’ 작가의 ‘경화연운’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여배우 ‘조미’가 주연한 작품으로 지난해 제2회 중국 드라마 풍운방이 발표한 중국 드라마 50강에서 2005년 최고 드라마로 선정되어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부분을 휩쓸었다. 또한 국내 인기리에 방영된 ‘요조숙녀’의 원작인 일본드라

IV. 홍보결과



마 ‘나카조노 미호’ 작가의 ‘야마토나데시코’가,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대만 드라마 ‘채문걸’ 작가의 ‘판관 포청천’ 등 각국의 대표작품이 상영되고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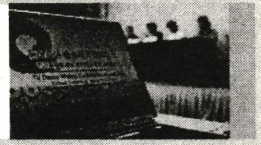
아시아를 휩쓴 한국대표드라마 ‘겨울연가’의 김은희, 윤은경 작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방송드라마라는 대중적이고 친근한 소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회의와는 크게 구별지어 볼 만하다. 또한 동아시아의 핫이슈가 될 만한 유명 드라마의 방송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행사라는 점도 단연 눈여겨볼 만하다. 방송작가들의 드라마를 통한 생각의 공유와 이해증진을 위한 이번 컨퍼런스는 방송을 통한 아시아 문화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대표적인 행사로써 그 개최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문화산업교류를 지원하는 단체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방송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방송영상의 3대 시장인 한국, 일본, 중국의 방송작가간 상호이해를 증진 및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앞선 문화 시장으로써의 발판을 다지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방송작가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드라마 시장의 중심리더로써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주요 행사인 방송작가들의 토론 외에도 부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방송작가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IV. 홍보결과



<붙임>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 행사 안내

《행사개요》

- 행 사 명: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
(TV Drama Writer' s Conference of East Asia)
- 일 시 및 장 소
- 2006년 6월.14일(수)~ 17일(토) / 4일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
- 참가규모: 5개국 100명(참여작가 62명)
한·중·일·대만·홍콩의 드라마 작가 및 취재단
- 주 최: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 주 관: 한국방송작가협회
- 후 원: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컨벤션뷰로
- 해외협력: 일본방송작가협회, 북경영시예술가협회, 상해방송작가협회,
상해미디어그룹, 홍콩 TVB, 대만 비디오랜드

IV. 홍보결과



《세부프로그램》

TIME	6.14(수)		6.15(목)	6.16(금)	6.17(토)
08:00~09:00	Registration				Post-Tour
09:00~09:20			Opening & Keynote Speech	Session III-1 일본드라마 상영	
09:20~10:10			Session I-1 한국드라마 상영	Coffee Break	
10:10~10:35			Coffee Break	Session III-2 발표 및 토론	
10:35~10:50			Session II-2 발표 및 토론	Lunch	
10:50~12:00					
12:00~12:10					
12:10~13:00			Lunch		
13:00~13:30					
13:30~14:00			Session II-1 중국드라마 상영	Session IV-1 대만드라마 상영	
14:00~14:30			Coffee Break	Coffee Break	
14:30~14:50			Session III-2 발표 및 토론	Session IV-2 발표 및 토론	
14:50~15:05			Pre-Tour	Coffee Break	
15:05~16:00	휴식 및 이동	Session V총평			
16:00~16:30		휴식 및 이동			
16:30~16:40					
16:40~17:40					
17:40~18:30	Dinner	Welcome Reception			
18:30~18:50					
18:50~19:00					
19:00~20:00					
20:00~20:30			Farewell Party		
20:30~21:00					
21:00~21:30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IV. 홍보결과



2. 언론 보도자료

총 45개 언론사 보도자료 발송을 통해 총 16개 언론사 29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청

6.14~17, 동아시아 방송작가들이 부산에서 만난다

[2006.06.12] 부산광역시

6.14(수)~6.17(토) 부산웨스턴조선호텔에서 '동아시아 방송작가 교류세미나' 개최, 한국·중국·일본 등의 유명드라마 방송작가 80여명 참가,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문화의 동질성' 주제로 세미나 및 부산관광패م 투어 가져..

한국·일본·중국 등의 유명 TV드라마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인기드라마를 감상하면서 함께 토론토 해보는 뜻깊은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면서 부산을 동아시아 TV드라마의 주무대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국내외 유명 방송작가 70여명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교류세미나'가 오는 6월 14일(수)부터 17일(토)까지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됨에 따라 아시아 방송작가들이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각국의 드라마를 통해 부산이 홍보되도록 이번 세미나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신현택)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박정란)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로, 6월 15일(목) 오전 9시 부산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식을 갖고, 한국·중국·일본·대만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가발표와 함께 토론하며, 부산관광투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드라마를 통한 생각의 공유와 이해증진을 위한 '동아시아 방송작가 교류세미나'는 동아시아의 핫이슈가 될만한 유명 드라마의 방송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행사로서, 한국의 방송작가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드라마 시장의 중심리더로써의 확고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세미나에서는 각 세션별로 대표작품을 상영하고,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하

IV. 홍보결과



게 되며, 아시아를 휩쓴 한국대표드라마 '겨울연가'의 김은희, 윤은경 작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세미나 첫날(6.15)에는

△'굿바이솔로', '꽃보다 아름다워', '거짓말' 등 작품성과 매니아층의 인기로 유명한 드라마작가 노회경의 '유행가가 되리'가 한국대표작품으로 첫상영 및 발표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어 중국 대표작으로 선정된 '양효웅' 작가의 중국드라마 '경화연운'을 상영, 작가발표와 질문, 토론시간을 가진다. 중국드라마 '경화연운'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여배우 '조미' 주연한 작품으로, 지난해 제2회 중국 드라마 풍운방이 발표한 중국 드라마 50강에서 2005년최고 드라마로 선정되어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 부분을 휩쓴 작품이다.

세미나 이틀째(6.16)에는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된 '요조숙녀'의 원작인 일본 드라마 '나카조노 미호' 작가의 '야마토나데시코'가 일본의 대표작품으로 상영되고,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최초 중화권 드라마인 '채문걸'작가의 '판관 포청천'이 대만의 대표작품으로 상영된다. 각 세션별로 대표작품을 상영하고,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문화산업교류를 지원하는 단체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방송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방송영상의 3대 시장인 한국, 일본, 중국의 방송작가간 상호이해를 증진 및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앞선 문화 시장으로써의 발판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APEC누리마루 하우스'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 투어를 통해 동아시아 방송작가들에게 부산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끼도록 하며, 세미나 첫날(6.15)에는 해운대 크루즈 '티파니21'선상에서 관광설명회를 겸한 환영만찬도 가질 예정이다.

IV. 홍보결과



2) 부산일보

"아시아적 상상력 TV 드라마의 보고"

[2006.06.17] 부산일보 이현우기자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노희경 작가 등 정상급 60여명 한자리



'겨울연가'의 김연희, '꽃보다 아름다워'의 노희경과 '판관 포청천'(대만)의 차이차오위, '요조숙녀'(일본)의 나카조노 미호 등 동아시아 지역 정상급 드라마 작가들이 부산에 모였다.

15~16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비치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에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의 드라마 작가 60여명이 동아시아 방송 콘텐츠의 현주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주최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박정란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노희경, 김운경, 최연지 등 20명의 작가가 모였고, 일본 20명, 중국 17명, 대만 5명 모두 62명의 정상급 방송작가들이 부산으로 날아왔다. 동아시아 각국의 유명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의 주제

IV. 홍보결과



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컨퍼런스는 이틀 동안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15일에는 한국 노회경의 '유행가가 되리'와 중국 양샤오송의 '경화연운'을 다같이 감상한 뒤 작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식 직후 '유행가가 되리' 상영에 이어 노회경은 "한국 드라마는 10~20대 위주의 시청자 쪽에 편중돼 있는데 이제는 중장년층을 위한 멜로 작품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일본 작가 쓰가와 이즈미는 "한국 드라마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남녀의 연애를 다루는 데도 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며 "철학적 교훈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중국 작가 푸싱은 "한국 드라마는 인간미와 내면 등 세밀한 부분의 묘사가 뛰어나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날 오후 제2세션에서 상영된 '경화연운'은 지난해 제2회 '중국 드라마 50강'에서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된 작품이다.

양샤오송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지만 아시아 드라마는 사람들 마음 속의 완벽한 여성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공통성을 띤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꼽힌 예가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다.

이어 16일에는 일본 나카조노 미호의 '야마토 나데시코'와 대만 차이 차오위의 '관관 포청천'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상영됐다.

작가들은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황을 공유하고 드라마 공동제작과 공동소재 개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신현택 이사장은 "앞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3) 국제신문

[다이제스트] 동아시아방송작가회의 개최

[2006.06.05] 국제신문

동아시아방송작가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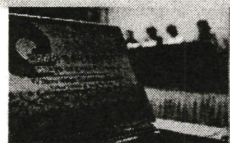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등 5개국 62명의 방송 작가가 참가하는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가 오는 14~17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원조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의 김은희, 윤은경 작가를 비롯해 노희경, 김운경, 박정란 씨 등이 참가하고, 일본의 유명 작가 나카조노 미호, 중국의 왕리핑 등이 부산을 찾는다.

컨퍼런스 기간 '경화연운'(중국), '유행가가 되리'(노희경 작), '야마토 나데시코'(일본), '판관 포청천'(대만) 등의 드라마가 상영되고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IV. 홍보결과



4)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1]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 14일 부산에서 개최

[2006.06.04]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한국·중국·일본·대만의 방송작가 70여 명이 대거 참석하는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컨퍼런스에는 김운경·노희경·박정란·송정림·최연지·한운사 등 한국 작가를 비롯하여 중국 10여 명, 일본 20여 명의 유명 방송 작가들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작가들이 한국·중국·일본·대만의 대표 드라마를 감상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유행가가 되리'(노희경·한국), '경화연운'(양효웅·중국), '야마토 나데시코'(나카조노 미호·일본), '판관 포청천'(채문걸·대만) 등이 상영작으로 결정됐다. 특히 '야마토 나데시코'는 김희선이 출연한 SBS 드라마 '요조숙녀'의 원작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측은 "동아시아의 유명 드라마 방송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초이자 최대의 행사"라며 "각국 방송작가 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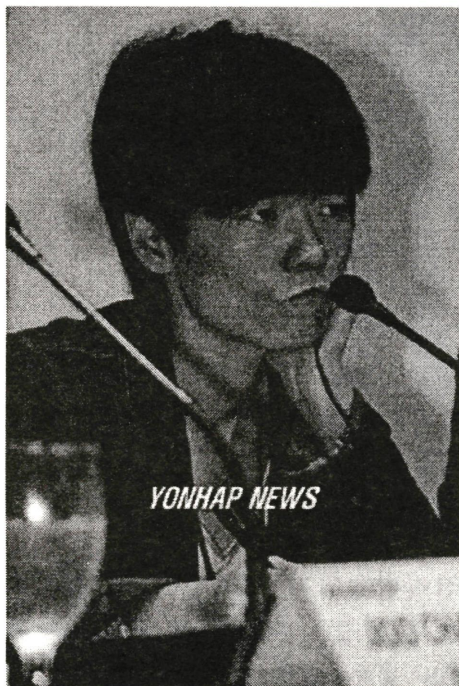
IV. 홍보결과



[연합뉴스: 기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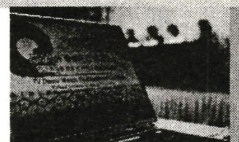
동아시아방송작가 컨퍼런스 개막식

[2006.06.15]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1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방송작가 컨퍼런스'에서 한국드라마 세션 이후 노희경 작가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제공/문화/연예

IV. 홍보결과



[연합신문: 기사 3]

국제콘퍼런스 참여한 4개국 방송작가

[2006.06.16]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16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방송작가 콘퍼런스'에 참석한 대만의 차이차오위, 일본의 나카조노 미호, 한국의 노희경, 중국의 양샤오송(왼쪽 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제공/문화/연예/

IV. 홍보결과



[연합신문: 기사 4]

<인터뷰> 국제콘퍼런스 참여한 4개국 방송작가

[2006.06.16]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노희경 · 양샤오송 · 나카조노 미호 · 차이차오위
"상투성 못 벗어나면 아시아 드라마 죽는다"

동아시아의 유명 드라마 작가가 대규모로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 노희경 작가는 "당사자들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1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콘퍼런스를 찾은 60여 명의 한국 · 중국 · 일본 · 대만 · 홍콩의 드라마 작가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격의 없이 서로의 작품을 놓고 토론을 했다. 각국 드라마 제작 현실과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즐겁게 의견을 나눴다.

16일까지 양일간 각국을 대표해 상영된 네 드라마의 작가를 한꺼번에 만나 각자의 생각을 들어봤다. '유행가가 되리'의 노희경, 중국 '경화연운'의 양샤오송, 일본 '야마토 나데시코'의 나카조노 미호, 대만 '판관 포청천'의 차이차오위 등이 주인공이다. 이하 일문일답.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본 경험과 감상을 소개해달라.

▲차이차오위(이하 차이) = '겨울연가'와 '유리구두'가 인상 깊다. '겨울연가'에서는 대만에서 찍을 수 없는 아름다운 배경이 나온다. 대만에서는 한국처럼 정부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그런 배경을 찍기가 쉽지 않다. '유리구두'는 가족 사랑이라는 주제가 대만 사람에게 와 닿은 것 같다. 대만에도 한국과 비슷한 드라마가 많지만 것처럼 꾸며내지는 못한다.

▲나카조노 미호(이하 나카조노) = '겨울연가'를 모두 봤다. 일본에서는 엄마 세대들이 이 드라마에 빠져 있다. 일본은 테크닉이 지나치고 소재가 자극적이다. '겨울연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일본 사람들이 반했다. '겨울연가' 때문에 일본의 제작진들도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희경 작가의 작품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 감동이 컸다. 일본에서는 젊은 층 위주로 드라마를 제작하다 보니 것처럼 순수하고 차분하면 기획 자체가 되기 어렵다. 이런 자극을 안고 돌아가서 노작가의 스타일에 도전해 보고 싶다.

내 작품이 원작인 '요조숙녀'도 봤다. 그런데 여자 캐릭터의 설정이 바뀌었다. 원래 악역에 치우쳐야 하는데 너무 착하게 그렸다. 일본에서는 여주인공이 악역이라

IV. 홍보결과



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노희경(이하 노) = 대만 '판관 포청천'과 일본 '뉴스의 여자' 등을 봤다. 대만은 스토리의 탄탄함이 돋보인다. '뉴스의 여자'는 섬세해서 영상소설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런 작품을 집중해서 보는 일본 시청자가 대단하다.

▲양샤오송(이하 양) = '명성황후' '대장금' '유리구두' 등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명성황후'를 좋아한다. 갑오경장 등의 사건을 중국이 아닌 한국의 시각으로 다룬 것이 재미있었다.

중국에서는 드라마의 예쁜 여자는 황후가 되기를 바라고 권력싸움을 다룬 스토리에 휘말린다. 하지만 '대장금'은 예쁜 여자가 기술직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모습을 담았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각국 드라마 속 남녀 캐릭터의 차이는.

▲노 = 사실 각국이 모두 비슷해졌다. 우리나라 대다수 트렌디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의 전형적인 캐릭터를 뽑아 썼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기중심적이고 반항적인 캐릭터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나카조노 = '겨울연가'의 배용준은 오로지 한 여자만을 위한다. 일본에는 거의 없는 캐릭터다. 순수한 최지우 캐릭터도 일본에는 없다. 일본 여자들은 최지우를 통해 자신의 순수한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다.

▲차이 = 대만은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기 힘들다. 감독이 바꾸라면 바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의 개선점은.

▲노 =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한국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등을 지금처럼 계속 담고, 일본 드라마는 반항적인 캐릭터, 중국은 계승의 문제만을 고집하면 아시아 드라마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다.

한류는 꺾이고 있다. 그래도 완전히 외면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기존 작품과 차별화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 드라마를 베끼고 제작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중국의 앞선 제작 시스템이 들어오면 우리 드라마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나카조노 = 일본도 30년 전에는 출생의 비밀 등을 많이 다뤘다. 흥미 때문에 드라마에 기복을 많이 줬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후 요즘은 사람의 심층을 파고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

--각국 드라마 제작 상황의 변화 양상은.

▲노 = 우리는 지금 스토리에서 캐릭터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배우가 주 문한 드라마를 쓰는 상황도 종종 생긴다. 배우가 원하는 대로 드라마가 움직이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 배우 중심의 드라마 제작사가 많아져서 작가의 권리가 갈수록

IV. 홍보결과



줄어들고 있다. 시청자가 외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사전제작제와 지금 형태의 드라마 제작방식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5부작이나 10부작을 만들어 방송한 후 반응이 좋으면 또 만드는 식으로 가야할 것 같다.

▲나카조노 = 일본에서도 집필 때 시간에 많이 쫓긴다. 미국처럼 집단 작가 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 러브스토리 부분 등 세부 분야별로 나눠 쓰기도 한다.

▲차이 = 대만은 작가의 전투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극본을 쓴 적이 있다. 정치 사회적 소재는 잘 안 다룬다.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그런 소재를 쓰는가.

▲양 = 중국은 촬영을 끝내고 심사를 거쳐야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시청자 반응에 따라 스토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오쩌둥 등을 다룬 경우에는 심사가 심하지만 다른 소재는 별로 심하지 않다.

IV. 홍보결과



[연합신문: 기사 5]

"동아시아 방송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06.06.15]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동아시아방송작가 컨퍼런스 개막식

한·중·일·대만 작가 참석한 가운데 콘퍼런스 개막



동아시아 지역의 내로라 하는 드라마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드라마를 감상하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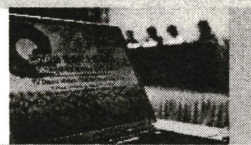
동아시아 드라마 작가 60여 명이 참석한 동아시아 방송작가 콘퍼런스가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로 15일 오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정란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한운사·노희경·김운경·최연지·송정림 등 한국 20명과 일본 20명, 중국 17명, 대만 5명 등 총 62명의 동아시아 드라마 작가들이 참석했으며 16일까지 열린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유명 작가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열 계획이며, 내년에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등 서양의 유명 작가들도 참석하도록 행사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사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했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식에는 신현택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과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 안준태 부산

IV. 홍보결과



광역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 개막을 축하했다.

컨퍼런스는 양일간 나라별로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5일에는 한국과 중국의 '유행가가 되리'(노희경), '경화연운'(양샤오송)을 감상한 후 작가의 발표와 토론이 열리고 16일 상영작으로는 '야마토 나데시코'(나카조노 미호·일본), '판관 포청천'(차이차오위·대만)이 선정됐다.

개회식 직후에 '유행가가 되리'를 감상하는 자리가 먼저 마련됐다. 2005년 KBS 2TV에서 2부작으로 방영된 이 드라마는 박근형·윤여정 등이 주연을 맡았으며, 사회에서 소외된 중년층의 고단한 인생을 현실감 있게 그려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토론에 나선 노희경 작가는 "한국 드라마는 10~20대 위주인데 나이 든 세대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됐다"며 "한국 드라마는 최근 세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작가 쓰가와 이즈미는 "한국 드라마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남녀의 연애에서도 철학적인 면이 있다. 이런 철학적 교훈이 일본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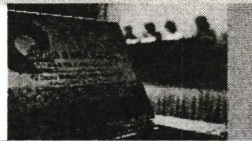
또 중국 작가 푸싱은 "한국 드라마는 인간미와 내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잘 묘사한다"면서 "또 편집이 드라마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제2세션에서 상영되는 '경화연운'은 지난해 제2회 중국드라마 평원방(風雲榜)이 발표한 '중국 드라마 50강'에서 2005년 최고 드라마로 선정된 작품.

상영 후 발표에 나서는 양샤오송 작가는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아시아 각국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지만 우리 마음 속의 완벽한 여성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은 아시아 드라마의 공통점"이라며 '경화연운'과 '대장금'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아시아 각국에는 같은 소재가 많다.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초를 찾아 나섰다는 서복의 신화는 제주도 용두암과 일본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소재들이 각국 동업자의 흥미를 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IV. 홍보결과



[연합신문: 기사 6]

동아시아 유명 방송작가 부산서 모인다

[2006.06.12] 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내로라하는 방송작가 70여명이 오는 14일 부산에 모인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재단법인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을 주제로 3박4일간 주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교류 세미나에 참석해 각국의 대표작을 감상하고 토론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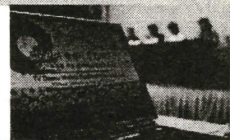
개회식이 열리는 15일에는 '굿바이 솔로', '꽃보다 아름다워' 등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흥행몰이에도 일가견이 있는 노희경 작가의 '유행가가 되리'와 지난해 중국에서 최고의 드라마로 꼽힌 양효웅 작가의 '경화연운(京華煙雲)'이 상영된다.

16일에는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된 '요조숙녀'의 원작이자 일본의 나카조노 미호 작가가 쓴 '야마토 나데시코'와 대만 채문걸 작가의 '판관 포청천'이 상영된 뒤 집중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한류열풍의 대명사인 '겨울연가'의 김은희, 윤은경 작가가 참석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들 유명 방송작가들에게 누리마루APEC하우스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무료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첫 컨벤션 크루즈인 '티파니21호'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 부산이 드라마 촬영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IV. 홍보결과



[연합신문: 기사 7]

<인터뷰> 신현택 亞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2006.06.15]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심층인터뷰> '아시아문화공동체' 추진 신현택 이사장

"방송작가 교류는 아시아 문화 교류의 시발점"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의 유명 방송작가 60여 명이 한곳에 모여 각국 드라마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콘퍼런스가 15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 작가들은 "동아시아 문화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이런 행사가 진작에 마련됐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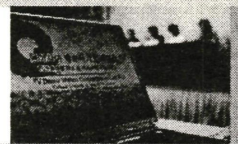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했다. 행사를 기획·총괄한 신현택(61)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을 만나 아시아 문화 교류의 필요성과 드라마 작가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그는 "작가 간의 교류는 아시아 문화 교류의 시발점"이라며 "각국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중국에서 한·중 작가 세미나를 연 바 있다. 올해는 일본·대만 등의 작가까지 초청해 실질적인 동아시아 방송작가 세미나를 마련했다. 작가들이 아시아

IV. 홍보결과



문화의 공통분모를 찾고 소재를 개발해 보자는 취지다.

--동아시아 작가 간 교류의 의의와 필요성은.

▲한류와 방송 등의 힘은 작가의 글에서 나온다. 아시아의 문화가 어우러지고 있으며 서로 기본적인 사고도 비슷하다. 서로 교류함으로써 각국 작품이 다른 나라에서도 공감대를 가질 만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문화 교류를 문화 침투로 여기는 경향도 일부 있었다. 해외에 일방적으로 한국 드라마 수출을 하다가 반한류가 생기는 것이 좋은 예다. 문화는 쌍방이 교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취지를 이해시켰다. 사실 아시아 드라마도 각국이 함께 투자, 제작, 배급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영작과 초청 작가의 선정 기준은.

▲각 나라의 히트작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일본방송작가협회, 베이징영화TV예술가협회, 상하이작가협회 등의 협조를 얻었다. 한국 노회경 작가의 '유행가가 되리'의 경우, 인간이 심오하게 느끼는 부분은 각국이 비슷할 것이라는 점에서 선정했다.

--한류의 위기가 거론된다.

▲작가 인프라가 빈약한 것도 한 원인이다. 한국 작가들은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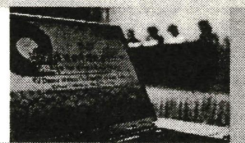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인가.

▲매년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 생각이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6월 말부터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만큼 내년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미국 등의 작가도 참석하게 할 예정이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삼화프로덕션에서는 한류 등을 위해 어떤 드라마를 준비 중인가.

▲9월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눈꽃'이 있다. 김수현 작가가 집필을 하며 김희애와 고아라를 비롯해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등이 캐스팅됐다. 중국과 합작으로 제작하는 20부작 '미로'도 이달 하순 크랭크 인한다. 이 드라마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투자와 제작을 하며 이종원·신애 등이 출연한다.

IV. 홍보결과



세계일보 | SEGYE.com

5) 세계일보

한국 드라마시장 리더로

東亞방송작가 세미나 마친 박정란씨

[2006.06.16] 세계일보 추영준 기자



“지금 한류가 들썩거리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더 발전시키고 힘을 키워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죠.”

박정란(65·사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16일 ‘제1회 동아시아 방송작가 교류 세미나’ 폐막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방송작가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드라마 시장의 중심 리더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신현택)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의 방송작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 15일에는 한국과 중국의 ‘유행가가 되리’ (노희경), ‘경화연운’ (양샤오송)을 감상한 후 작가 발표와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란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16일에는 ‘야마토 나데시코’ (나카조노 미호·일본), ‘판관 포청천’ (차이차오위·대만) 등이 상영됐다.

박정란 이사장은 “아시아 국가의 방송작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우선 의미가 크고 각국 드라마를 함께 감상하면서 진지하게 토론의 시간도 가져 상당히 유익한 행사였다”며 “그동안 아시아 국가간 협회 차원의 교류는 있었지만, 방송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IV. 홍보결과



한겨레 THE HANKYOREH

6) 한겨레신문

[한겨레 신문: 기사 1]

한·중·일·대만 드라마작가 대담...한국 드라마 인기 비결은 테크닉

[2006.06.16] 한겨레 신문 김소민 기자



한국·중국·일본·대만의 방송작가 62명이 지난 14일부터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 모여 '티브이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에서 이들은 각국의 드라마를 한편씩 본 뒤 의견을 나눴다.

이들 작가가 보는 한국 드라마의 힘과 한계는 무엇일까? 또 그들의 작업 환경은 나라마다 어떻게 다를까? 토론회에 참여한 작가 가운데 <굿바이 솔로>의 노희경, 중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경화연운>의 양샤오송, 한국에서 <요조숙녀>라는 제목으로 다시 만들어진 드라마 <야마토 나데시코>의 나카조노 미호, <판관 포청천>으로 대만과 한국 시청자를 모두 사로잡았던 차이차오위에게 들어봤다.

중국은 스토리·일본은 내면묘사 강점

한국 드라마를 보는 까닭

노희경= 한국 드라마가 점점 스토리 보다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해요. 이에 비해 중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강하죠. 일본 드라마 볼 때는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내면 표현이 세밀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시청자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걸 보면 부럽고 놀라워요. 긴박감은 한국 드라마가 더 있는 듯해요.

IV. 홍보결과



양샤오슝=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특히 <명성황후>가 재밌었죠. 중국인들도 거의 모두 아는 갑오전쟁(청일전쟁)을 한국인의 시각으로 그린 부분이 새롭더군요. <대장금>은 베이징에서 시청률이 최고였어요. 중국 사극도 많은데 <대장금>이 왜 인기인지가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가 됐죠. 중국 사극에선 예쁜 여자들이 황후가 되고 아들을 낳아 권력을 거머쥐려는 암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핵심인데 대장금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원하죠. 이런 여성 캐릭터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봐요. 요즘엔 <목욕탕집 남자들>이 인기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가족 사이 사랑을 다룬 드라마를 중국인들은 좋아해요.

‘대장금’ ‘겨울연가’ 캐릭터 공감 인기

나카조노 미호= <겨울연가> 전편을 다 봤어요. 일본 드라마는 소재가 자극적일 때가 많고 점점 기교를 지나치게 부려요. 그래서 <겨울연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더 반하는 듯해요. 일본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연약한 남성들과는 달리 한 여자만 일편단심 사랑하며 어려운 일 다 떠맡아 주는 남성 캐릭터도 드라마 인기에 한몫했죠. 여성 캐릭터를 보며 시청자들은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때를 떠올려요.

비슷하고 다른 작가의 현실

노희경=촬영 당일 대본이 나오면 제작비는 올라가고 완성도는 떨어지죠. 시청자의 반응과 입맛에 그때그때 맞출 수는 있지만 이런 관행은 점차 바뀔 거예요. 요즘엔 작가의 권한이 줄어들고 있어요. 배우 중심의 기획사가 드라마 제작까지 하니까 작가가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배우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해요. 아직은 작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배우 쪽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죠. 균형이 깨지면 드라마의 질이 떨어져 서로 망할 수도 있어요.



차이차오위= 대만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해요. 저는 촬영 현장 옆에서 바로 대본을 쓴적도 있어요. 밥을 함께 먹는 저녁 8시계가 황금 시간대인데 이때 감정을 많이 자극하지 않으면 시청률 올리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그래도 대만보다는 작가의 권한이 큰 것 같아요. 대만에선 감독 뜻에 따라 극중 캐릭터도 막 바꾸니까요.

IV. 홍보결과



나카조노 미호= 일본에선 사전제작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대본을 여러 작가가 나눠쓰기도 하죠. 러브 스토리가 강한 작가가 멜로 라인을 맡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몇번 있어요. 하지만 할리우드처럼 여러 작가가 머리를 맞대 시즌별로 제작하지는 않고 있죠.

양샤오쑹= 중국도 모두 사전제작이에요. 투자자와 방송국에 심사를 받아야 하죠. 중국엔 방송사가 600여개나 되는데 한 곳에만 방송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마오쩌둥 등을 다룬 역사물은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사회주의를 비판하면 방송하기 어렵죠.

이래서 아쉬운 한국 드라마

노희경= 10·20대를 겨냥한 드라마에 너무 몰려있어요. 요즘 미국 멜로 드라마는 30·40대를 겨냥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깊이 있는 멜로가 뜨길 바라죠. 정형화된 캐릭터도 문제죠. 스토리의 반복은 창피한 수준이고요. 일본 드라마나 만화에서 캐릭터와 스토리를 훑쳐와 우리 것인양 포장해 되팔기도 해요. 전체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인과응보죠. 앞으로 색다른 캐릭터가 시청률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또 전세계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인간 본질을 다뤄야겠죠.

한국·대만 작가 영향력 점점 작아져

나카조노 미호= 출생의 비밀, 기억 상실... 30년 전께 일본 드라마도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죠. 드라마에 감정 기복이 많아야 인기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20%까지 올라가던 시청률이 점점 떨어져 요즘엔 15% 나오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시행착오를 겪고 난뒤 개인 내면을 잡아내는 데 작가들이 더 많이 신경쓰게 됐죠.

차이차오위= 지금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건 테크닉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시청자들은 곧 질리겠죠. 기억 상실 같은 이야기는 대만 드라마에도 수없이 많거든요.



[한겨레 신문: 기사 2]

동아시아 '스타 방송작가' 해운대 집결

IV. 홍보결과



14~17일 콘퍼런스 열려

한겨레 신문 신동명 기자

동아시아의 드라마 방송작가 70여명이 부산에 모여 아시아 드라마의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보는 행사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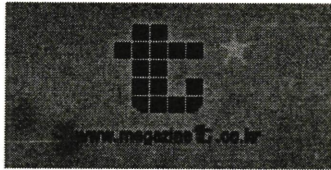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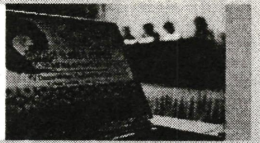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콘퍼런스’가 14~17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티브이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대만·홍콩의 방송작가 70여명이 참가한다. 국내에선 아시아 한류열풍을 이끈 드라마 〈겨울연가〉의 김은희·윤은경 작가를 비롯해 김운경·김인영·노희경·박정란 등의 작가들이 참가한다.

이들 작가들은 〈유행가가 되리〉(한국), 〈경화연운〉(중국), 〈야마토 나데시코〉(일본), 〈판관 포청천〉(대만) 등 각국의 대표 드라마 작품을 해당 작가의 설명과 함께 감상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동아시아의 유명 드라마 방송작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행사”라며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방송영상의 3대 시장인 한국·일본·중국의 방송작가간 상호 이해증진 및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V. 홍보결과



7) 매거진 T

[매거진T: 기사 1]

부산에서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개막
한, 중, 일 드라마작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 열려

[2006.06.16] 매거진 T 최지은 기자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가 15일 오전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유명 방송작가 7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이은 '한국 드라마 세션'에서는 노희경 작가의 2004년 KBS 창사특집극 <유행가가 되리>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사이가 소원한 50대 부부를 주인공으로 나이듦과 외로움에 대해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 낸 이 작품은 각국의 방송작가들로 구성된 토론회 패널과 참석자들의 열띤 반응

IV. 홍보결과



을 이끌어 냈다. 노희경 작가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와 가정의 주축인 50대 이상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드물기 때문에 단막극에서라도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밝힌 뒤, 아직 자신은 40대 초반이지만 "나이 든 이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나이 많은 나'와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일본 작가 쓰가와 이즈미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도 내년인 2007년에 대거 은퇴하게 되기 때문에 중년의 위기에 대한 이 작품과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며 공감을 표한 뒤 "며느리가 집에 찾아 온 시어머니를 반기는 척 하는 에피소드에서는 일본인에게도 있는 '혼네(본심)'와 '다테마에(겉모양)'의 문화를 연상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국 상해 출신의 작가 왕리핑이 "이 작품이 남자들이나 젊은이들로부터도 인기를 얻었나?"라고 묻자 노작가는 "그랬다고 믿고 싶다."고 운을 떼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뒤 "연령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이 이 작품을 봤다는 글을 보고, 기대하진 않았어도 기뻐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중국 드라마 세션에서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배우 '조미'가 주연을 맡은 44부작 드라마 <경화연운>(京華煙雲)의 1회가 상영되었다. 중국의 유명 문학가 임어당의 소설을 각색한 이 작품은 1930년대 북경을 배경으로 현명하고 강인한 여주인공과 세 가문의 얽히고 설킨 인연을 그리고 있다. 작가 양효웅은 "아시아 드라마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는 완벽한 여인상을 만든다는 사실이다. 한국 <대장금>의 서장금, <경화연운>의 여주인공 요목란, 일본 드라마 <붉은 의복>에 나오는 사치코라는 캐릭터가 모두 그렇다. 아시아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낮지만 그녀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각 나라 작가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일 것이다." 라고 아시아 각국 드라마들의 동질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한국에서 <요조숙녀>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된 일본 드라마 <야마토나데시코>와 몇 해 전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의 원작자와 함께 상영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IV. 홍보결과



[매거진T: 기사 2]

아시아를 울리고 웃긴 그들, 부산에서 만난다.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2006.06.12] 매거진 T



<유행가가 되리>

아시아를 대표하는 드라마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가 오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방송작가 70 여 명이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국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품들을 감상하고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끄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 드라마로는 노회경 작가의 <유행가가 되리>가 상영된다. 또한 중국에서 2005년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되었던 <경화연운>과,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요조숙녀>의 원작인 일본 드라마 <야마토나데시코>,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 등이 상영되고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류 드라마를 비롯해 방송을 통한 문화산업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아시아 방송영상의 3대 시장인 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 이해 및 우호 관계가 증진될 전망이다.

IV. 홍보결과



mydaily

8) 마이데일리

45년 역사, 우리 드라마의 여정과 판도는?

[2006.06.15] 마이데일리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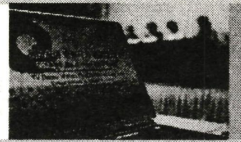
한국 드라마는 시청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왔다. 방송 초창기부터 드라마는 다른 장르와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요즘도 연간 시청률 상위 10개 프로그램 중 7~8개가 드라마가 차지하는 것은 단적으로 드라마에 대한 우리 시청자의 관심의 정도를 보여준다.

카메라 두 대로 촬영을 했던 열악한 상황 속에서 1962년 1월 19일 KBS TV가 이기하 연출로 방송한 유치진 희곡 '나도 인간이 되련다' 극화한 것을 시작으로 드라마 역사를 연 이래 한국 드라마는 지난 40여년 동안 비약적인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 한국 드라마는 안방의 인기를 넘어 199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한류의 기폭제 역할을 하며 중국, 일본 등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상품으로 부상하는 등 그 위상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고려대 김승현교수는 저서 '한국사회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드라마의 시대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KBS, TBC, MBC가 개국해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던 1962~1969년 텔레비전 드라마는 초창기 드라마 포맷과 내용을 개발하기 시작해 드라마가 삶을 수용하고 접목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수상기가 대중화된 1970~1980년

IV. 홍보결과



은 한국의 대표적인 오락 매체의 자리를 영화로부터 인수한 드라마는 시청자의 정서 속에 서서히 녹아들으로써 시청자들이 그 매력으로 흡입되던 시기, 즉 드라마가 시청자의 정서 속에 자리 잡던 시기이며 통속적인 삶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드라마가 일상을 반영하고 재생하였던 시대였다. 컬러텔레비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1981년~1991년은 드라마가 규모면에서 대형화되고 성숙되어진 시기이자 드라마가 일상성을 구축하던 시기였고 SBS의 개국으로 현재의 KBS, MBC, SBS의 체제가 구축된 1992년부터 1999년까지는 드라마가 상품으로 자리 잡게 돼 방송 3사간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로 드라마가 감각적인 소비 사회라는 현실에서 오히려 삶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드라마적 완성도를 높인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이 국내 안방을 찾는 한편 해외를 겨냥하며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유균)의 '2005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2004년 대비 72.8%가 증가한 1억2349만 달러로 이중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92%인 1억162만 달러에 달했다. 드라마 평균 편당 수출단가도 2004년 4,046달러에서 2005년 4,921달러 크게 상승하고 있다. 드라마는 주로 일본(60.1%), 대만(11.4%), 중국(9.9%), 필리핀(3.7%) 등에 수출되고 있다.

드라마 제작 주체도 그동안 큰 변화를 겪었는데 방송사들이 독점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김중학 프로덕션, 올리브 나인 등 외주 제작사들과 싸이더스, DSP 등 사업 영역을 제작까지 확대한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등 30여 곳의 제작사들이 속속 드라마 제작에 나섬으로서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 드라마는 많은 변화를 하게 됐다.

하지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드라마의 제작 전진 기지를 할 뿐만 아니라 드라마 방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 케이블 방송의 개국, 2002년 위성방송의 시작 등으로 드라마를 수요 하는 채널들도 급증해 그야말로 드라마의 춘추전국 시대를 맞았다.

2006년 5월 현재 지상파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단막극, 특집극 제외)는 모두 27편에 이른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 12편, MBC 6편, SBS 6편, EBS 3편. 1년에 총 80여편의 드라마가 제작되고 단막극, 특집극을 포함하면 170여편 내외의 다양한 드라마가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드라마의 국내 매출 규모는 5500억원 정도(2005년 기준)이다. 수출 규모가 1100억원이니까 국내외 매출을 모두 합치면 6600억원 정도에 이른다.

IV. 홍보결과



한국 드라마는 단막극, 일일극, 주말극, 그리고 월화, 수목 미니시리즈 등 요일별로 방송사마다 비슷한 장르의 드라마를 편성해왔고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현대극, 시대극, 그리고 사극의 다양한 종류의 드라마를 배치해 시청자와 만나게 한다.

단막극은 1960~1970년대 방송 초창기에는 주로 문학 작품이나 희곡 작품들을 다뤘으나 근래 들어와서는 주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내보내고 있다. MBC ‘베스트극장’, KBS ‘드라마 시티’ 등 단막극은 신인 연출자의 데뷔 채널일 뿐만 아니라 신인작가들의 등용문이었다. 현재 드라마의 중추 세력을 형성한 노회경, 최완규, 정성희 등 수많은 작가들이 이 단막극을 통해 작가로 데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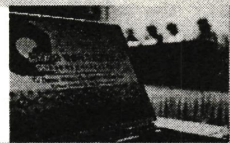
단막극과 특집극은 이러한 역할 외에도 기존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주제와 독창적 소재, 실험적인 영상 등으로 무장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뤄 드라마의 변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05년 3월 방송된 노회경 작가의 KBS 창사특집 2부작 드라마 ‘유행가가 되리’는 이러한 단막극의 특성을 잘 보여줬는데 평범한 중년부부의 위태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삶의 단면을 잔잔히 그려 국내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동시에 2005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1회 상하이 국제 TV 페스티벌’에서 TV 드라마 부문에서 매그놀리아 대상과 최우수 극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962년 KBS ‘다녀왔습니다’ (남지은 작가), 1964년 TBC ‘눈이 나리는데’ (한운사 작가), 1969년 MBC ‘사랑하는 갈대’ (김옥수 작가) 등 각 방송사 일일드라마를 시작으로 1970년대 한 방송사에서 3~4개를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방송사의 시청률 격전지를 벌이고 현재에도 여전히 중장년층 시청자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일일극은 과거에는 사극, 시대극, 현대극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내보냈으나 근래 들어서는 가족애와 가족구성원들의 애정을 다룬 전형적인 홈드라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일일 드라마는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된 작품들을 수없이 남겼는데 ‘개구리 남편’ ‘새엄마’ (김수현작) ‘여로’ (이남섭작) ‘아씨’ (임희재작), ‘보통사람들’ (나연숙작) 수도 없이 많다.

현재 일일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와 오후 8시대 방송되는 드라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송사마다 1~3개의 일일극을 내보내고 있다. 아침 드라마는 두 부류로 나뉘볼 수 있는데 KBS 1TV ‘TV소설’은 주로 시대극을 편성해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가족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의 아침 드라마는 변화하는 가족상과 부부의 사랑과 도덕, 불륜 등을 다루고 있다. 오후 시간대의 일일 드라마는 현재의 한국 가족들의 모습과 가족애, 그리고 젊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과 일을 소재로 한 홈드라마가 방송

IV. 홍보결과



되고 있다.

주말극은 홈 드라마와 멜로 드라마를 비롯한 현대극과 사극과 시대극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수놓고 있다. 최근 들어 SBS를 중심으로 주말극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디 드라마를 편성하고 있기도 하다. 주말극은 일일극의 장점과 트렌디 드라마의 장점을 혼용해 갈등구조는 일일 드라마보다 강하고 트렌디 드라마보다는 연속성을 갖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김수현, 김정수, 김운경, 이금림 문영남 등 중견 작가들이 주로 주말 드라마를 맡아 집필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근래 들어서는 임성한 등 30~40대 신진 작가들의 주말극 진출이 눈에 띄면서 새로운 드라마 트루기로 젊은이들의 사랑을 다룬 멜로 드라마들이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1987년 최인호 원작의 MBC '불새'를 시작으로 드라마의 새 장을 연 8부~24부작의 미니시리즈는 주로 월화, 수목요일에 주로 편성되고 주 2회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미니시리즈는 1992년 '질투'를 시작으로 새로운 장르로 부각된 트렌디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세대나 젊은 시청자를 겨냥한 한국의 트렌디 드라마는 반짝 인기를 누린 일본의 트렌디 드라마와 달리 10여년 이상 높은 인기를 유지하며 현재에도 최고의 인기를 끄는 드라마 장르로 각광 받는다.

IV. 홍보결과



‘별은 내가슴에’ ‘사랑을 그대 품안에’ ‘겨울연가’ ‘파리의 연인’ 등 수많은 시청자로부터 사랑을 받은 트렌디 드라마는 스토리 텔링이나 대사 위주가 아니라 감각과 분위기 위주이며 젊은이들의 유행, 말투, 그들이 선호하는 음악 등이 중시되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위주로 극이 전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0~30대 신예 작가들이 주로 집필하고 있으며 트렌디 드라마는 한국 스타의 산실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류의 진원지 및 기폭제 역할을 했다. 현재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트렌디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극이다. 한국 사극의 역사는 한국 텔레비전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4년 KBS가 7월에 방송한 ‘국토 만리’ (박신민 극본, 김재형 연출)가 한국 방송에서 최초의 사극으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전설을 극화한 것이다. 1960~1970년대의 한국 사극은 KBS, TBC, MBC 등 방송 3사가 일일극, 주간극, 단막극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사극을 선보였는데 정사보다는 역사 뒤편의 인물이나 에피소드 등 야사를 극화한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

TBC가 사극을 이 시기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방송했는데 KBS에서 TBC로 자리를 옮긴 김재형PD 등이 유주현등 유명 소설가의 역사 소설을 극화한 사극을 주로 방송했다. 1980년대의 사극은 KBS의 주말시간대에 고정 편성된 대하사극과 10년넘게 조선 시대의 역사와 인물을 다룬 MBC의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로 대변된다. KBS는 1980년 4~7월 조선 단종과 세조시대를 배경으로 왕위찬탈을 그린 유주현 소설을 드라마화 한 대하사극 ‘과천무’ (이철향 극본, 이진욱 연출)를 시작으로 2005년 인기를 끌었던 ‘불멸의 이순신’ (윤선주 극본, 이성주 연출)등 현재까지 KBS 1TV의 주말 대하 사극의 명맥은 20여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IV. 홍보결과



1990년대의 사극은 형식과 내용, 영상 스타일, 소재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다.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극이 점차 고려 등 시대적 배경을 확대했으며 현대적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대사 역시 고어투에서 현대적 말투로 변화시켜 사극의 사각지대인 젊은 시청자들을 사극 앞으로 끌어 들이려 노력했던 시기다. 이시기 눈길을 끌었던 사극은 1991년 MBC가 방송한 ‘동의보감’으로 조선시대 명의 허준의 일대기를 다룬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높은 인기를 끈데 이어 ‘동의보감’에서 다룬 허준을 1999년 다시 한번 MBC가 사극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시청률 60%까지 오르며 국민사극으로 떠오른 드라마 ‘허준’ (최완규작)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사극은 현대극과 사극을 혼합한 퓨전사극들이 젊은이들의 관심에 힘입어 인기를 끈 시기이다. 또한 조선시대 중심의 사극에서 완전히 탈피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부터 고려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들이 속속 제작됐다. 퓨전사극으로 빠른 템포와 화려한 영상의 퓨전사극으로 눈길을 끈 것은 조선시대 비극적 여자 수사관의 사랑을 다룬 ‘다모’ (정형수작) 신라시대 무역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해신’ (정진옥작), 조선시대 수랏간 궁녀 장금이의 삶을 그린 ‘대장금’ (김영현작) 등이 있다.

2006년 올해는 백제 무왕의 일대기를 담은 이병훈 PD의 ‘서동요’가 SBS를 통해 방송돼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태왕사신기’ ‘주몽’ ‘연개소문’ 등 고구려 백제등 시대의 지평을 확장한 대형 사극들이 속속 시청자와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다.

이밖에도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과 정치적 상황과 인물을 다룬 ‘모래시계’ (송지나작), 1960년대 곤궁했던 삶을 사실성 높게 그린 ‘은실이’ (이금림작),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격동기를 배경으로 두 여성의 일과 사랑을 보여준 ‘국희’를 비롯한 시대극과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0여년 넘게 장수했던 ‘전원일기’ (김정수작), 서민들의 애환을 따스한 시선으로 안은 ‘한지붕 세가족’ 같은 시추에이션 드라마 들도 한국 드라마의 지평을 확대해왔다.

시청자의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국내외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인 한국 드라마는 적지 않은 문제도 안고 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의 90% 가까이 남녀의 사랑을 다룬 멜로 드라마에 집중돼 있고 기존작품의 모방 및 아류작, 뻔한 서사구조, 개연성 없는 황당한 구성, 지나치게 우연적이고 극적인 사건의 연속, 엇비슷한 캐릭터와 갈등기제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작가, 연출자 등 훌륭한 젊은 인적 자원들이

IV. 홍보결과



대거 드라마 제작으로 물리고 있는데다 드라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 환경의 호조 등 드라마 제작환경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는 앞으로 여전히 한국 방송에서 시청자들로 사랑받는 드라마로 자리할 것이며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대중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작가 콘퍼런스'의 기고문입니다.



IV. 홍보결과



현대인을 위한 뉴스브리핑

아시아투데이
A S I A T O D A Y

9)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기사 1]

‘아시아 유명 작가 한자리에’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개최

[2006.06.02]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아시아의 유명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가 오는 14일~17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방송작가 70여명이 함께 한다.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는 국·내외 유명 방송작가들이 참여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품들을 감상하고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상영 선정된 ‘양효웅’ 작가의 중국드라마 ‘경화연운’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여배우 ‘조미’ 주연한 작품으로 지난해 제2회 중국 드라마 풍운방이 발표한 중국 드라마 50강에서 2005년 최고 드라마로 선정되어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부분을 휩쓸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굿바이솔로’ ‘꽃보다 아름다워’ ‘거짓말’ 등 작품성과 매니아층의 인기로 유명한 드라마 작가 노회경의 ‘유행가가 되리’가 상영되며, 국내 인기리에 방영된 ‘요조숙녀’의 원작인 일본 드라마 ‘나카조노 미호’ 작가의 ‘야마토나데시코’, 한때 인기리에 방영됐던 대만 드라마 ‘채문걸’ 작가의 ‘판판 포청천’ 등 각국의 대표작품이 상영되고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를 휩쓴 한국대표 드라마 ‘겨울연가’의 김은희, 윤은경 작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방송드라마’라는 대중적이고 친근한 소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회의와는 크게 구별지어 볼 만하다.

한편 주요 행사인 방송작가들의 토론 외에도 부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비롯해 동아시아의 방송작가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IV. 홍보결과



[아시아투데이: 기사 2]

동아시아 대표 방송 작가들 부산에 모여

동아시아방송작가 컨퍼런스 개막

[2006.06.14]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꽃보다 아름다워의 ‘노희경’, 판관 포청천의 ‘차이 차오 위’ 등 동아시아 대표 방송작가들이 부산에 모인다.

바로 오는 15일~16일까지 ‘동아시아 방송영상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위해 참석하는 것.

이번에 모이는 작가는 한국에서는 노희경을 대표작가로 모두 16명, 중국 13명, 일본 20명, 홍콩과 대만에서 20여명이 참석한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신현택)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박정란)가 주관하며 부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 웨스틴 조선에서 한국, 중국 등의 드라마 상영 및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황과 함께 향후 동아시아 지역 드라마 공동 제작과 공동 소재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개막식이 있는 15일에는 한국 대표 노희경의 드라마 ‘유행가가 되리’, 중국 양효웅의 드라마 ‘경화연운’ 상영과 함께 작가 발표, 질문 및 토론 등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은 “아시아 지역 방송영상문화를 선호하는 4개국을 대표하는 방송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방송인들의 축제”라며 “향후 외연을 확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송콘텐츠 작가들과의 교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V. 홍보결과



[아시아투데이: 기사 3]

‘아시아 유명 작가 한자리에’

아시아의 유명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006.06.02]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가 오는 14일~17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방송작가 70여명이 함께 한다.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는 국.내외 유명 방송작가들이 참여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품들을 감상하고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상영 선정된 양효웅 작가의 중국드라마 경화연운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여배우 조미 주연한 작품으로 지난해 제2회 중국 드라마 풍운방이 발표한 중국 드라마 50장에서 2005년 최고 드라마로 선정되어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부분을 휩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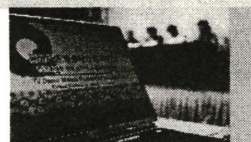
특히 한국 드라마는 굿바이솔로 꽃보다 아름다워 거짓말 등 작품성과 매니아층의 인기로 유명한 드라마 작가 노희경의 유행가가 되리가 상영되며, 국내 인기리에 방영된 요조숙녀의 원작인 일본 드라마 나카조노 미호 작가의 야마토나데시코, 한때 인기리에 방영됐던 대만 드라마 채문걸 작가의 판관 포청천 등 각국의 대표작품이 상영되고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를 휩쓴 한국대표 드라마 겨울연가의 김은희, 윤은경 작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방송드라마 라는 대중적이고 친근한 소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회의와는 크게 구별지어 볼 만하다.

한편 주요 행사인 방송작가들의 토론외에도 부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비롯해 동아시아의 방송작가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IV. 홍보결과



MONEY DAY

10)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기사 1]

[2006.06.01]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아시아 유명 드라마 작가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드라마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행사를 갖는다.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이 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가 오는 14~17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방송작가 70 여명이 함께 한다. 한국에서는 김운경, 김인영, 노희경, 박정란 등의 작가들과 한류열풍을 이끈 '겨울연가'(사진)의 김은희, 윤은경 작가도 참여한다.

이들은 함께 유명 자국 드라마를 감상하고 토론할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한국 드라마로는 노희경 작가의 '유행가가 되리', 중국 드라마로는 조미 주연의 '경화연운', 일본드라마로는 '요조숙녀'의 원작자인 나카조노 미호 작가의 '야마토나데시코', 대만 드라마로는 '판관 포청전' 등이 상영된다.

재단 측은 "이번 컨퍼런스는 동아시아의 핫이슈가 될만한 유명 드라마의 방송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행사"라며 "동아시아 방송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방송영상의 3대 시장인 한국, 일본, 중국의 방송작가간 상호이해를 증진 및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앞선 문화 시장으로서의 발판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IV. 홍보결과



[머니투데이: 기사 2]

중·일·대만 드라마작가 "'겨울연가' '유리구두' 재밌어"

[2006.06.16]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한류 드라마가 아시아 각국 작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7일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동아시아 유명 방송작가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행사 둘째날인 16일 중국, 대만, 일본 등 3개국을 대표한 방송작가 3명(양샤오송(사진 맨 오른쪽), 차이차오위(맨 왼쪽, 나카조노 미호(왼쪽에서 두번째))씨는 하나같이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임어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경화연운'의 극본을 쓴 중국의 양샤오송 작가는 "한국드라마를 많이 봤다. 개인적으로는 '명성황후'를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성황후'는 중국에서 다 아는 갑오전쟁을 한국의 시각에서 그렸기 때문에 재밌게 봤다"고 덧붙였다.

양 작가는 또 "'대장금'도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다. 북경 지역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북경 방송국에서 토론을 진행할 때 초대손님으로 나간 적도 있다"며 "중국의 사극은 예쁜 여자가 나오면 황후가 되기를 바라는 스토리 위주로 권력 싸움을 핵심으로 다뤘는데, 여자 출연자들이 의사, 주방장, 기술직 등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그렸기에 열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판관 포청전'의 작가인 대만의 차이차오위 씨는 "'겨울연가'와 '유리구두'가 인상깊었다"며 "남녀의 사랑을 생동감있게 그려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IV. 홍보결과



차이 작가는 "'겨울연가'는 남녀주인공이 너무 예쁘고 멋있었으며 아름다운 배경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 정부측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지 않았냐"고 물으며 "대만에서는 드라마에서 요구되는 그런 배경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유리구두'는 가족과 사랑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 젊은 층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다 빠져서 봤다. 대만 사람 거의 다 다봤을 것"이라며 "대만에서는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희선 주연의 '요조숙녀'의 원작자인 나카조노 작가는 자신은 다른 일본 작가들에 비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지 못한 편이라며 "지난해 '겨울연가' 전편을 다 봤는데, 지금 일본에서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빠져있고 '겨울연가'를 안봤으면 주변 사람들과 얘기가 안 통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드라마는 테크닉이 지나치고 소재가 자극적인데 반해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데 다들 반한 것 같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청자들이 이런 드라마를 원하고 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 동석한 한국의 노희경(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작가는 "대만의 '판관 포청전'과 일본의 '뉴스의 여자' 등을 봤는데, 대만은 스토리의 탄탄함이 돋보였고 '뉴스의 여자'는 소설을 읽는 것 같이 섬세한 묘사한 돋보였다. 그런 드라마를 집중해서 봐주는 일본 시청자들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IV. 홍보결과



[머니투데이: 기사 3]

'요조숙녀' 日원작자 "김희선역은 본래 악역"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

[2006.06.16]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지난 2003년 방송된 김희선 주연의 SBS '요조숙녀'의 원작인 '야마토나데시코'의 극본을 집필한 일본의 유명작가 나카조노 미호(사진)씨가 김희선 역이 본래는 악역이었다고 밝혔다.

14~17일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유명 방송작가 70여명이 참가한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에 참석한 나카조노 작가는 행사 둘째날인 16일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나카조노 작가는 "'요조숙녀'의 한국 리메이크를 해적판으로(웃음) 첫회를 봤는데, 여자 캐릭터 설정이 바뀌어져 있었다"며 "내가 쓸 때는 얼마나 못되게 보일까에 초점을 맞춰 썼는데, 너무 착하게 그려졌다는 것을 1회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일본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게 표현되기 마련이어서, '연애보다 돈이 더 좋다'고 밝히는 여자 캐릭터는 일종의 모험이었다"며 "각본을 보고 일본시청자들이 반감을 가지겠다, 이런 나쁜 악역을 누가 맡아주거나 할 건지 우려들을 했는데, 방송되면서 큰 호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카조노 작가는 또 "한국에 와서 캐릭터가 바뀐 것은 한국의 제작자들이 못된 여자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나, 배우들이 이런 역을 맡기 어렵다고 해서일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일본에서 방송된 '야마토나데시코'는 가난 때문에 돈 많은 남자를 잡기 위해 애쓰는 스튜어디스의 사랑찾기를 그려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IV. 홍보결과



한편 나카조노 작가는 이날 상영된 퇴직을 앞둔 중년 부부를 그린 노회경 작가의 2부작 드라마 '유행가가 되리'에 대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런 드라마를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나카조노 작가는 "일본에는 시청자들이 어린 사람들이 되다 보니 격렬한 감정이 없는 순수하고 차분한 드라마의 기획자체가 힘들다"며 "나도 중년이고 중년의 문제를 소재로 작품을 쓰고 싶지만, 제작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드라마를 많이 쓰기를 원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IV. 홍보결과



11) 뉴시스

노희경, "한국드라마 강점, 인간 내면 중시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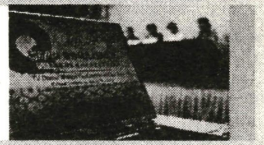
[2006.06.15] 뉴시스 박인옥 기자



15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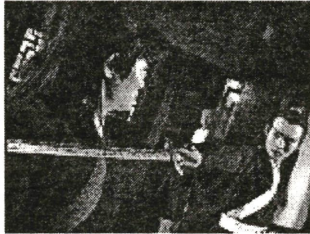
'꽃보다 아름다워', '굿바이 솔로' 등으로 널리 알려진 노희경 작가가 "한국 드라마의 강점은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제공)

IV. 홍보결과



12) 부산컨벤션뷰로

유명 드라마 작가 부산으로 다 모인다.



경화연운, 유행가가 되리. 야마토 나데시코, 판관포청천,, 한미 FTA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경제 통합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제통합은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둘 때만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문명 비판가인 새뮤얼 헌팅톤, 그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된다.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신현택)에서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박정란)에서 주관한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하의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다. 이번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를 통해 동북아 각 나라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들이 방송작가들간의 전통들이 방송작가들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더욱 빛을 발하길.

IV. 홍보결과



13) 더데일리포커스

[2006.06.13] 더데일리포커스

동아시아 방송작가 부산서 세미나

14일부터 웨스틴조선호텔

부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내로라하는 방송작가 70여명이 부산에서 모여 각국의 인기 드라마를 감상하며 토론을 하는 행사가 열린다.

14일부터 재단법인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진성'을 주제로 3박4일간 주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교류 세미나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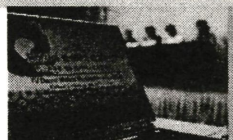
개회식이 열리는 15일에는 '굿바이 솔로', '꽃보다 아름다워' 등

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흥행몰이에도 일가견이 있는 노회경 작가의 '유행가가 되라'와 지난해 중국에서 최고의 드라마로 꼽힌 양효웅 작가의 '경화연운(京華煙雲)'이 상영된다.

16일에는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된 '요조숙녀'의 원작이자 일본의 나카조노미호 작가가 쓴 '야마토 나데시코'와 대만 채문길 작가의 '귀관 포청천'이 상영된 뒤 집중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한류열풍의 대명사인 '겨울연가'의 김은희, 윤은경 작가가 참석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IV. 홍보결과



metro

14) 메트로

[2006.06.05] 메트로 김수미 기자

드라마로 다시 보는 아시아문화

14~17일 방송작가 컨퍼런스

아시아 유명 드라마 작가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TV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방송작가 7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의 유명 방송작가들이 침석해 대표작인 드라마 작품들을 감상하고 함께 토론한다. 양효승 작가의 중국 드라마 '경화연운'과 한국 드라마 '넋이속' '꽃보다 아름다워' '거짓말' '유행가가 되리'가

선정돼 상영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요조호녀'의 원작인 나가즈노 미호 작가의 드라마 '야마토나데시코', 채문걸 작가의 대만 드라마 '완관 조형원' 등도 상영과 함께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까지 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를 뒤흔든 한국 대표 드라마 '서울연가'의 김윤하·윤은성 작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동아시아의 핫이슈가 될 만한 유명 드라마의 방송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후이자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행사라는 점과 각국 방송 드라마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의미를 갖는다. /김수미기자

IV. 홍보결과



부산·경남
대표채널 **KNN**

15) KNN

[KNN: 기사 1]

부산서 아시아방송작가 행사

[2006.06.05] KNN 송준우 기자

부산서 동아시아 방송작가 행사 아시아 문화산업 교류재단은 오는 14일부터 나흘동안 부산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의 방송작가 70여명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방송작가 콘퍼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며 한류 드라마의 인기원인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기사 2]

14일, 방송작가 교류세미나 개최

[2006.06.12] KNN 구형모 기자

동아시아 방송작가 부산서 세미나 동아시아 유명 방송작가 70여명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방송작가 교류세미나가 모레(14)부터 사흘동안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방송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품들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방송작가 세미나가 방송 드라마를 통해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작가들이 부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투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IV. 홍보결과



MBC

16) MBC

동아시아 드라마 작가 세미나 개최

[2006.06.12] MBC 탁은수 기자

동아시아 유명 TV드라마 작가들이 이번주 부산을 찾습니다.

아시아 문화산업교류재단은 모레부터 이틀 동안부산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출신의유명 TV드라마 작가들이 '아시아문화의 동질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류열풍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방송작가의 위상을 확인하고,아시아 드라마 시장의 협력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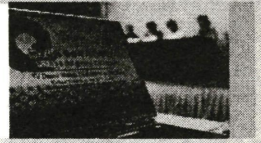
IV. 홍보결과



3. 언론사 리스트

No.	Com.	Name	Tel.	C.P.	e-mail
2	부산일보	이현우		011-878-0082	hooree@busanilbo.com
3	국제신문(이타임즈)	이병욱	051-742-5377	011-9230-4548	junny97@kookje.co.kr
4	KBS	나신하		011-708-1914	daniel@kbs.co.kr
5	MBC	이진호		011-384-0018	jhleembc@chol.com
6	부산 MBC	정세민	051-760-1354	011-575-6150	smjeong@busanmbc.co.kr
7	부산 MBC	탁은수		011-885-5008	estak@busanmbc.co.kr
8	KNN	윤혜림	051-850-9473		yoona@psb.co.kr
9	CBS	도송해	02-2650-7305		holysea69@cbs.co.kr
10	연합뉴스	김영현	02-398-3838	011-9729-6925	cool@yna.co.kr
11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백승찬	02-3701-1224		myungworry@kyunghyang.com
12	국민일보	모규엽		016-255-4467	hirte@kmib.co.kr
13	동아일보	주용휘	051-464-7870	011-720-6506	silent@donga.com
14	문화일보	강연곤	02-3701-5210	011-9963-6388	kyg@munhwa.com
15	서울신문	임창용	02-2000-9193	011-9936-3276	sdragon@seoul.co.kr
16	세계일보	추영준	02-2000-1292	011-720-5882	yjchoo@seggye.com
17	조선일보	신동훈	02-724-5385		dhshin@chosun.com
18	중앙일보	정형모	02-751-5583	011-9022-1132	hyung@joongang.co.kr
19	한겨레신문	신동명	051-464-9663	011-394-6242	tms13@hani.co.kr
20	한겨레신문	김소민	02-710-0649		prettyso@hani.co.kr
21	더데일리포커스	하태현	051-639-2020		hyun@focus.co.kr
22	메트로	김수미	051-959-2000		ksm@metrobusan.co.kr
23	YTN(부산)		051-634-8582		
24	코리아타임즈 /한국일보	이희정	02-724-2319		jaylee@hk.co.kr
25	내일신문	장유진	02-2287-2244	011-9042-0377	yjchang@naeil.com
26	뉴스시스(진주)	박인옥	055-747-0002		pio@newsis.com
27	디지털타임스	이택수	02-3701-5957	019-353-9134	micael@dt.co.kr
28	데일리 서프라이즈	최한성	02-2678-7248	011-739-0311	marunnamu01@dailyseop.com
29	머니투데이	김태은	02-724-0971	011-9718-3759	tekim@mtstarnews.com

IV. 홍보결과



30	매일경제	서진우	02-2000-2327	019-584-6447	jwsuh@mk.co.kr
31	MBN (매일경제 TV)	정창원	02-2000-3134		won@mk.co.kr
32	서울경제	홍병문	02-724-2470	011-9994-5896	hbm@sed.co.kr
33	한국경제	김재창	02-3604-285		charm@hankyung.com
34	한국경제 TV	김정필	02-6676-0113	018-233-1332	jpkim@wowtv.co.kr
35	헤럴드경제	홍성원	02-727-0396	016-9262-9130	hongi@heraldm.com
36	BBS(부산)	김종천 차장		018-215-0696	
37	SBS	김윤수	02-2113-4263		yunsoo@sbs.co.kr
38	PBC (평화방송)	박근후 차장	2270-2430	011-297-5599	khpark@pbc.co.kr
39	스포츠서울	담당자	02-2001-0204		sset@sportsseoul.com
40	스포츠조선	정경희	02-3219-8205		gumnuri@sportschosun.com
41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02-567-8678	016-407-2484	newtroll88@asiatoday.co.kr
42	오마이뉴스	조은미	02-733-5505	내선: 127	cool@ohmynews.com
43	이데일리	류의성	02-3772-0152	017-745-7360	esryu@edaily.co.kr
44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02-2003-7473	011-9145-6275	rainman@fnnews.com
45	코리아헤럴드	이용성	02-727-0248		danlee@heraldm.com
46	아리랑 TV	손희경	02-3475-5000		heekyung@arirang.co.kr
47	더게임스	성호철	02-2168-9521		hcsung@etnews.co.kr
48	뉴스엔조이	최소란	02-744-4116	011-9922-5783	newsnjoy@newsnjoy.co.kr
49	전자신문	권상희	02-2168-9462	019-308-8784	shkwon@etnews.co.kr
50	부산일보	이상민	051-461-4132	019-528-3592	yeyun@busanilbo.com
51	CBS 부산	강동수		019-272-6334	kairos91@cbs.co.kr
52	국민일보	윤봉학	051-861-3067	011-720-4111	bhyoon@kmib.co.kr
53	조선일보	김용우	051-469-5900	011-385-0245	yw-kim@chosun.com
54	YTN	권오진	02-398-8361		kjh0516@ytn.co.kr
55	한국일보	박상준	051-851-9300	011-860-0530	sjpark@hk.co.kr
56	BBS	김봉래	02-705-5279	019-9571-5000	kbrbud@hanmail.net

* 노란색으로 표기된 집단은 부산시청에서 별도로 보도자료가 발송되었습니다.

IV. 홍보결과



4. 첨부

▪ EDM 발송 일정

EDM 발송		
일자	진행사항	비고
2006.05.30	보도자료 준비	
2006.06.01	1 차 보도자료 발송	
2006.06.05	2 차 보도자료 발송	부산컨벤션뷰로 및 부산시청발송
2006.06.07	3 차 보도자료 발송	
2006.06.08	4 차 보도자료 발송	
2006.06.14	발제문 및 보도자료 발송	발제문(발표자 4 인)
2006.06.15	5 차 보도자료 발송	현장보도자료

IV. 홍보결과



▪ 인터뷰 일정

인터뷰 일정					
구분	언론사	기자명	연락처	일정	인터뷰 대상
1	메트로	김수미 기자	011-9535-3778	2006.06.15	개회식 및 Session 1
2	부산 MBC	탁은수 기자	011-885-5008	2006.06.15	개회식 및 Session 1
3	KBS			2006.06.15	개회식 및 Session 1
4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011-9729-6925	2006.06.15	신현택 이사장 인터뷰
5	세계일보	추영준 기자	011-720-5882	2006.06.15	박정란 이사장 인터뷰
6	KOFACE	이동진	016-773-9090	2006.06.15	발표작가 4인 인터뷰
7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011-9729-6925	2006.06.15	발표작가 4인 인터뷰
8	한겨레	김소민 기자	011-244-7365		(한국) 노희경
9	씨네 21	최지은 기자	011-9034-2684		(일본) 나카조노 미호,
10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011-9718-3759		(중국) 양효웅
					(대만) 채문걸
11	요미우리 신문	스즈키 요시카주 기자		2006.06.16	신현택 이사장 인터뷰
12	씨네 21	최지은 기자	011-9034-2684	2006.06.16	발표작가 3인 인터뷰 (중국) 양효웅 (일본) 요코타 리에 (홍콩) 가왜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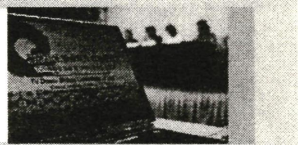


V. 부록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TV Drama Writers Conference of East Asia

'TV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Cultural Similarity of Asia in TV Dramas"

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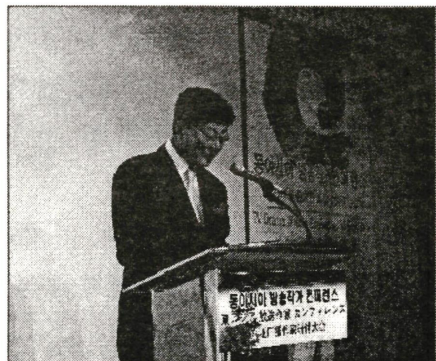


1. 행사 연설문

1) 개막식

가. 환영사

□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신현택입니다.

동아시아방송작가 컨퍼런스를 위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부산을 찾아주신 해외 작가 여러분과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분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산시와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재웅 의원님,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했던 한

국방송작가협회 박정란이사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시아지역의 문화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화권 국가들의 방송영상콘텐츠의 핵심브랜드들이 모두 모인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 의미 자체로도 이번 컨퍼런스는 동아시아 방송인들의 큰 축제이고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방송기술과 디지털 콘텐츠의 발달은 이제는 국적의 의미를 점점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배우와 감독 그리고 스태프들이 현재 활발하게 교류되면서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방송영상물은 아시아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방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시청자들은 같은 감동을 통한 서로의 동질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각국 작가들은 이제 자국의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모든 문화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이 집필한 드라마와 방송콘텐츠가 더욱 더 냉정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아시아 지역 방송영상콘텐츠의 공동의 발전과 소재공유 그리고 소재 개발을 위해 각 나라의 방송환경과 시청자들의 기호까지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교류되길 바라며 향후 여러분들의 집필에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첫 만남이지만 향후 상호 이해와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앞으로 아시아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6월 중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 각지의 방송작가들이 여러분들과 교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분의 교류에 필요한 제안과 질책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 부록

나. 축사I

□ 부산광역시 이재웅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재웅입니다.

시원한 파도소리가 절로 생각나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에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국,내외 유명 방송작가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과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동아시아 국가는 한 가족과 같이 국민들 스스로 대중문화의 동질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드라마라는 장르를 통하여 문화와 생활이 틀린 각국의 국민들이 생활의 공감을 인식해 이제는 자국의 드라마에 대한 평가와 칭찬 뿐만 아니라 서로의 드라마를 감상하고 그 작품에 매료되어 매니아층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포함한 대중문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드라마 ‘경화연운’ 이 국내에서 잘 알려져 익히 들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요조숙녀’의 원작이 일본 드라마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대표작품인 ‘판관포청천’의 경우 저도 즐겨보는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민들의 문화인식 변화를 고려하면, 이번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는 드라마와 방송을 통한 문화교류가 각국의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발판을 마련한 아주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모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동아시아 각국의 방송작가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세계적 문화시장으로서의 발판을 다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아시아 문화산업 교류와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각국의 방송작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이번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를 준비하신 아시아 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V. 부록



다. 축사II

□ 부산광역시 안준태 정무부시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유명 방송작가분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아름다운 관광도시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신현택 (재)아시아 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님, 박정란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반적인 국제회의와는 달리 방송 드라마라는 대중적이고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동아시아의 이슈가 될만한 유명 드라마 방송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 있는 중국의 대표작 「경화연운」의 작가이신 “양효웅” 님과, 일본 대표작 「야마토나데시코」의 작가이신 “나카조노미호” 님, 대만 대표작 「판관 포청천」의 작가이신 “채문걸” 님과 한류열풍을 일으킨 대표드라마인 「겨울연가」의 “김은희”, “윤은경” 님을 비롯해 훌륭한 작가님께서 많이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의 시발점으로 최근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문화가 세계인들로부터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 이곳 부산에서 행사가 개최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 부산시내의 관광자원 몇 곳을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산과 강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양도시이고 사시사철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도시이며, 세계적인 명성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금년 10월이면 11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영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2002년 월드컵 조추첨과 지역예선대회의 성공개최를 경험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일본을 비롯한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를 훌륭히 수행한 국제행사로 치러낸 바 있는 세계적인 관광컨벤션 도시이기도 합니다.

비록 4박 5일간의 짧은 공식일정이지만 부산에 머무시는 동안 아기자기하면서도 수려한 부산의 풍광도 즐기시고 부산시민의 활기찬 삶의 모습과 훈훈한 정을 가슴에 듬뿍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산시민은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하며 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구처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고향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부산의 문화와 관광자원, 그리고 따뜻한 인심을 널리 홍보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V. 부록



라. 개회사

□ 한국방송작가협회 박정란 이사장



아시아 드라마의 향기를 꿈꾸며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신 각국의 방송작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과 더불어 이번 행사를 열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참여해 주신 각국의 작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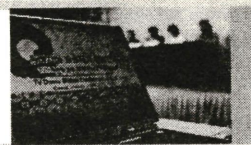
작가는 시대와 나라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하는 동일한 명제를 안고 인생 그 차제에 천착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하드웨어적인 측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작가들이 해야 하는 인간 탐구의 길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의 주제를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으로 정한 것도 애당초 이런 작가적 근본문제와 그다지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문화의 동질성에대한 연구는 결코 배타적이거나 편협한 지역적 획일성이 아니고 오히려 문을 열고 아시아의 문화적 감동과 정서를 세계를 향해 넓혀가는 창이 되고 다리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모처럼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들 아시아의 방송작가들만이라도 소통하고 결과적으로 큰 소득을 얻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아시아방송작가컨퍼런스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V. 부록



2) 총평

□ 공동선언문



동아시아 방송작가 교류 촉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2006년 6월 1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에서 채택하다)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이후 “컨퍼런스”로 약칭함)의 참가자들은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동아시아 국가 방송작가간 교류와 협력 강화가 동 지역에서 방송 콘텐츠 창작의 질을 높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송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1. 컨퍼런스를 한국, 일본, 북경, 상해, 홍콩, 대만 6개 지역에서 윤번하여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2. 2007년도 컨퍼런스 개최국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은 6개 지역의 합의로 2006년 10월말까지 확정한다.
3. 컨퍼런스의 사무국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향후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에 둔다.
4. 6개 지역의 합의 하에 참가 대상을 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박 정란

북경영화TV예술가협회 회장 이 정지

홍콩TVB 프로그램 개발부 아 군영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신 현열

일본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정욱과 신이치

상해미디어그룹 작가 왕 려평

대만비디오랜드 부사장 등 유종

V. 부록



4.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 설문대상: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작가 48명
- ◆ 설문방법: 현장 설문배포 후 평가 진행
- ◆ 설문기간: 2006년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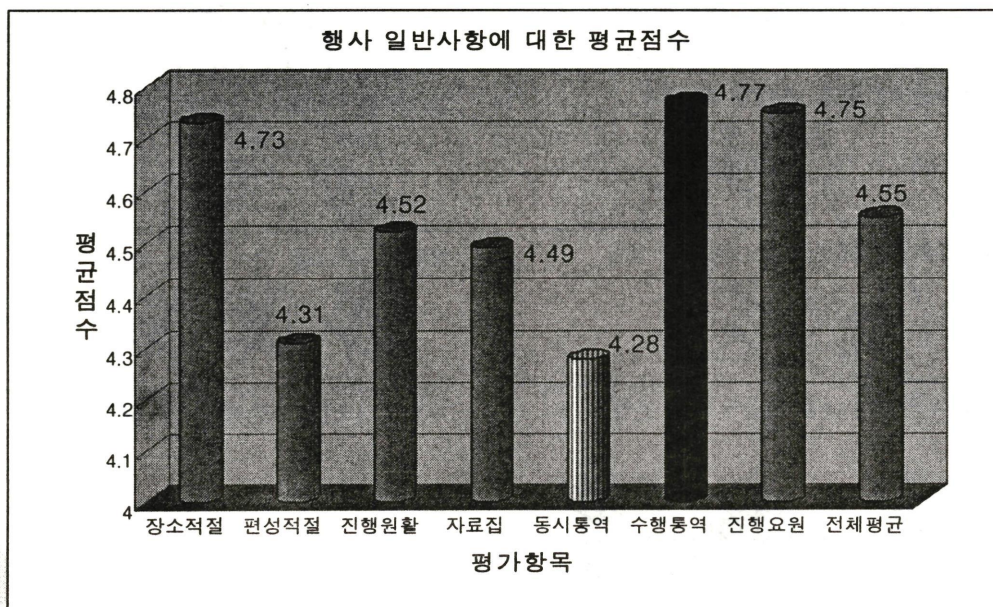
1) 행사 일반 사항에 대한 평가

행사와 관련한 일반 사항 평가는 컨퍼런스 장소와 시간 편성, 진행에 대한 질문과 기타 자료집의 구성과 편집, 동시통역과 수행통역, 진행요원에 대한 총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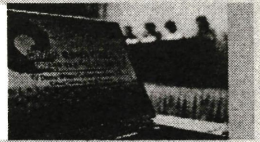
<표 1> 행사 일반 사항에 대한 평균 점수

	장소적절	편성적절	진행원활	자료집	동시통역	수행통역	진행요원	전체평균
응답 수(N)	48	48	48	47	47	48	48	47.7
응답 평균	4.73	4.31	4.52	4.49	4.28	4.77	4.75	4.55

<차트 1> 행사 일반 사항에 대한 평균 점수



V. 부록



우선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각 응답에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을 도출하여 각 항목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¹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만족함)의 점수 받아 전체적으로 행사 전반에 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55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산시 9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행통역 항목이 평균 4.77점(95.4/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진행요원 항목 4.75점(95/100)과 장소의 적절함 항목 4.73 점(94.6/100)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동시통역 항목이 4.28점(85.6/100), 행사의 시간편성 항목이 4.31점(86.2/100)으로 평가 항목 중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100점 기준 환산시 85점 이상이므로 만족도 면에서는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¹ 설문지의 구성은 ‘매우 만족(5점)’에서부터 ‘매우 불만족(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의 점수가 높을수록(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V. 부록



◎ 컨퍼런스 장소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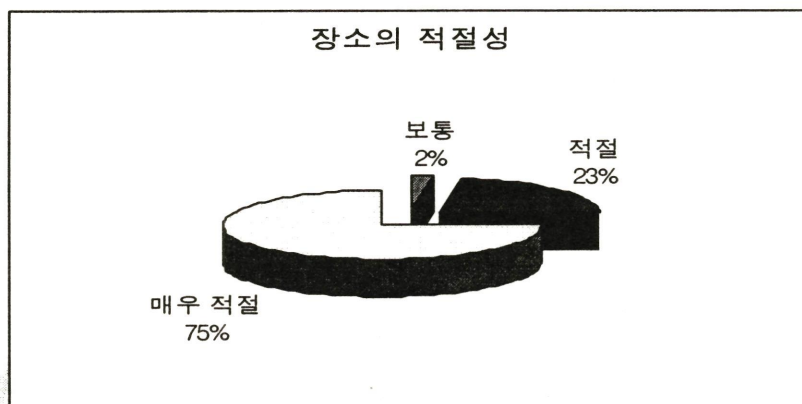
<표 2> 국가별 장소에 대한 평가

			장소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Total
국 적	한국	Count	0	5	9	14
		%	.0%	35.7%	64.3%	100.0%
	중국(북경)	Count	0	0	3	3
		%	.0%	.0%	100.0%	100.0%
	중국(상해)	Count	0	0	4	4
		%	.0%	.0%	100.0%	100.0%
	중국(홍콩)	Count	0	0	2	2
		%	.0%	.0%	100.0%	100.0%
	일본	Count	1	4	14	19
		%	5.3%	21.1%	73.7%	100.0%
	대만	Count	0	2	3	5
		%	.0%	40.0%	60.0%	100.0%
	무응답	Count	0	0	1	1
		%	.0%	.0%	100.0%	100.0%
Total		Count	1	11	36	48
		%	2.1%	22.9%	7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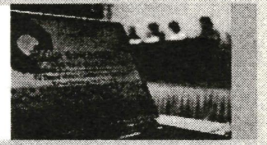
행사 장소였던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 회의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75%가 ‘매우 적절했다’ 라는 평가했다. ‘적절했다’ 라는 평가와 ‘매우 적절했다’ 라는 평가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98%가 행사장소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행사 장소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중국 작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상해, 홍콩에서 참가한 작가들은 모두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했다. 반면 한국과 대만 작가들의 응답 평균은 4.6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2> 컨퍼런스 장소에 대한 평가



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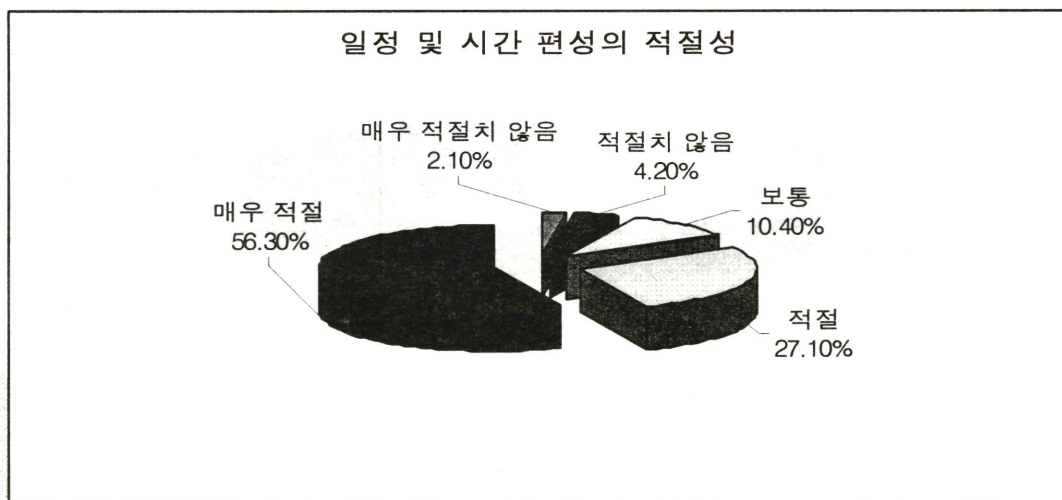
◎ 컨퍼런스 일정 편성 및 시간 배분의 적절성

<표 3> 국가별 일정 및 시간 배분에 대한 평가

			편성적절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치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Total
국적	한국	Count	0	2	3	5	4	14
		%	.0%	14.3%	21.4%	35.7%	28.6%	100.0%
	중국 (북경)	Count	0	0	0	0	3	3
		%	.0%	.0%	.0%	.0%	100.0%	100.0%
	중국 (상해)	Count	0	0	1	1	2	4
		%	.0%	.0%	25.0%	25.0%	50.0%	100.0%
	중국 (홍콩)	Count	0	0	0	1	1	2
		%	.0%	.0%	.0%	50.0%	50.0%	100.0%
	일본	Count	1	0	1	5	12	19
		%	5.3%	.0%	5.3%	26.3%	63.2%	100.0%
	대만	Count	0	0	0	1	4	5
		%	.0%	.0%	.0%	20.0%	80.0%	100.0%
	무응답	Count	0	0	0	0	1	1
		%	.0%	.0%	.0%	.0%	100.0%	100.0%
Total		Count	1	2	5	13	27	48
		%	2.1%	4.2%	10.4%	27.1%	56.3%	100.0%

다음으로 컨퍼런스 전체 일정 편성과 시간 배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적절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절했다’ 고 응답한 사람이 27.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보통이다’ 또는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라고 응답한 사람도 16.7%나 있어, 이 항목에 대한 보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트 3> 컨퍼런스 일정 및 시간 배분에 대한 평가



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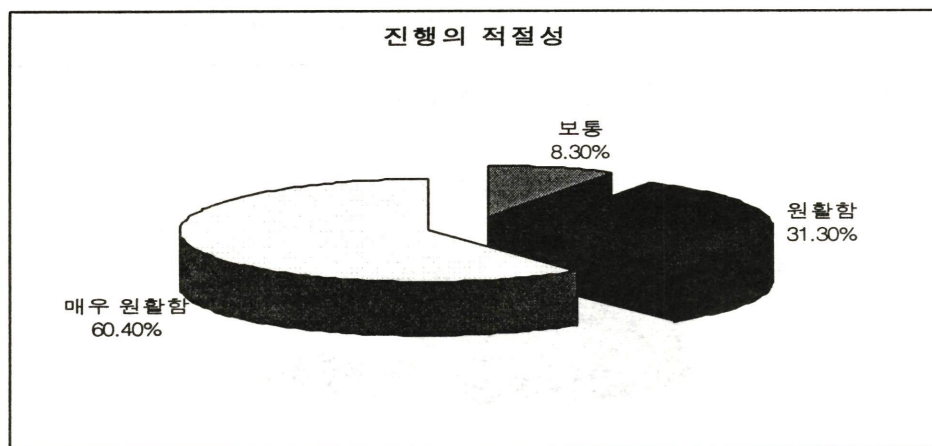
◎ 컨퍼런스 진행의 원활함

<표 4> 국가별 컨퍼런스 진행에 대한 평가

			진행원활			
			보통	원활함	매우 원활함	Total
국적	한국	Count	2	7	5	14
		%	14.3%	50.0%	35.7%	100.0%
	중국(북경)	Count	0	1	2	3
		%	.0%	33.3%	66.7%	100.0%
	중국(상해)	Count	0	0	4	4
		%	.0%	.0%	100.0%	100.0%
	중국(홍콩)	Count	0	1	1	2
		%	.0%	50.0%	50.0%	100.0%
	일본	Count	2	5	12	19
		%	10.5%	26.3%	63.2%	100.0%
	대만	Count	0	1	4	5
		%	.0%	20.0%	80.0%	100.0%
	무응답	Count	0	0	1	1
		%	.0%	.0%	100.0%	100.0%
Total		Count	4	15	29	48
		%	8.3%	31.3%	60.4%	100.0%

이번 컨퍼런스의 진행은 매우 원활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매우 원활했다’ 라고 응답한 사람(60.4%)과 ‘원활했다’ 라고 응답한 사람(31.3%)의 응답비율을 합하면 91.7%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대만의 작가들은 컨퍼런스 진행에 대해 매우 높은 평점(4.8점)을 준 반면 개최국인 한국의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점수(4.2점)를 부여해 국가별 차이를 보였다.

<차트 4> 컨퍼런스 진행에 대한 평가



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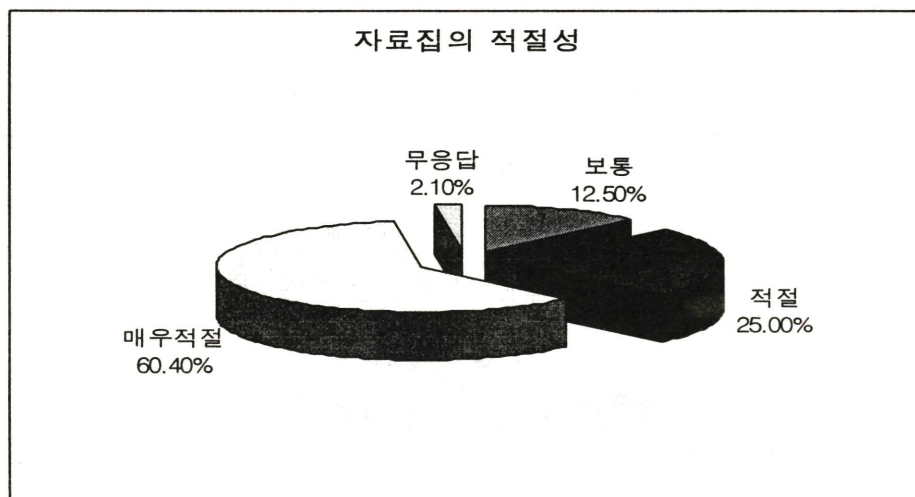
◎ 컨퍼런스 자료집의 구성 및 편집의 적절성

<표 5> 국가별 컨퍼런스 자료집에 대한 평가

			자료집				
			보통	적절	매우적절	무응답	Total
국적	한국	Count	1	6	7	0	14
		%	7.1%	42.9%	50.0%	.0%	100.0%
	중국 (북경)	Count	0	0	3	0	3
		%	.0%	.0%	100.0%	.0%	100.0%
	중국 (상해)	Count	0	0	4	0	4
		%	.0%	.0%	100.0%	.0%	100.0%
	중국 (홍콩)	Count	1	0	0	1	2
		%	50.0%	.0%	.0%	50.0%	100.0%
	일본	Count	2	5	12	0	19
		%	10.5%	26.3%	63.2%	.0%	100.0%
	대만	Count	2	1	2	0	5
		%	40.0%	20.0%	40.0%	.0%	100.0%
	무응답	Count	0	0	1	0	1
		%	.0%	.0%	100.0%	.0%	100.0%
Total		Count	6	12	29	1	48
		%	12.5%	25.0%	60.4%	2.1%	100.0%

이번 컨퍼런스에 사용된 자료집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적절했다’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절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5.0%로 나타나, 약 85%가 자료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5> 컨퍼런스 자료집에 대한 평가



V. 부록



◎ 컨퍼런스 동시통역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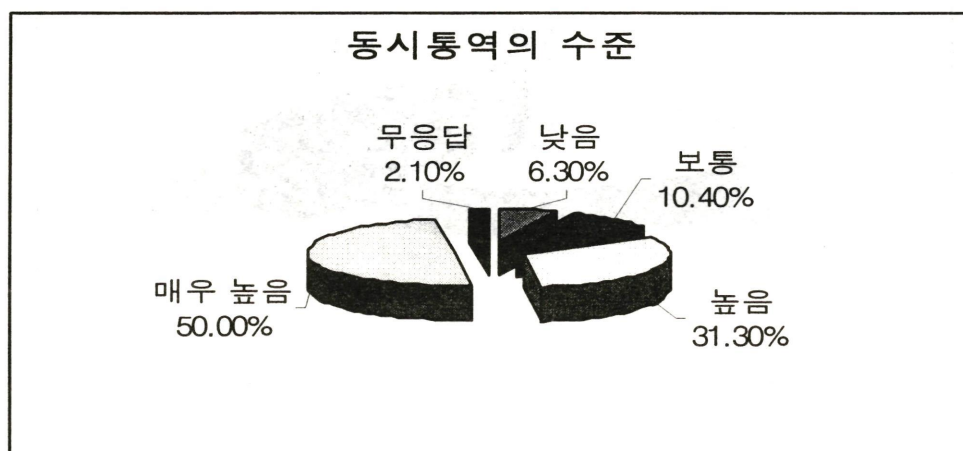
<표 6> 국가별 동시통역에 대한 평가

			동시통역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Total
국적	한국	Count	0	0	5	9	0	14
		%	.0%	.0%	35.7%	64.3%	.0%	100.0%
	중국 (북경)	Count	0	0	1	2	0	3
		%	.0%	.0%	33.3%	66.7%	.0%	100.0%
	중국 (상해)	Count	2	1	0	1	0	4
		%	50.0%	25.0%	.0%	25.0%	.0%	100.0%
	중국 (홍콩)	Count	0	0	1	1	0	2
		%	.0%	.0%	50.0%	50.0%	.0%	100.0%
	일본	Count	1	2	7	8	1	19
		%	5.3%	10.5%	36.8%	42.1%	5.3%	100.0%
	대만	Count	0	2	1	2	0	5
		%	.0%	40.0%	20.0%	40.0%	.0%	100.0%
	무응답	Count	0	0	0	1	0	1
		%	.0%	.0%	.0%	100.0%	.0%	100.0%
Total		Count	3	5	15	24	1	48
		%	6.3%	10.4%	31.3%	50.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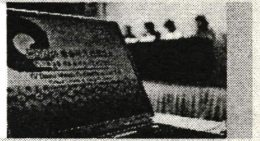
컨퍼런스 일반사항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동시통역 부분은 약 85%의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통역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6.3%,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0.4%로 나타나 이번 컨퍼런스 동시통역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상해의 작가들과 일본의 작가들이 동시통역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차트 6> 동시통역에 대한 평가



V. 부록



◎ 컨퍼런스 수행통역의 수준 및 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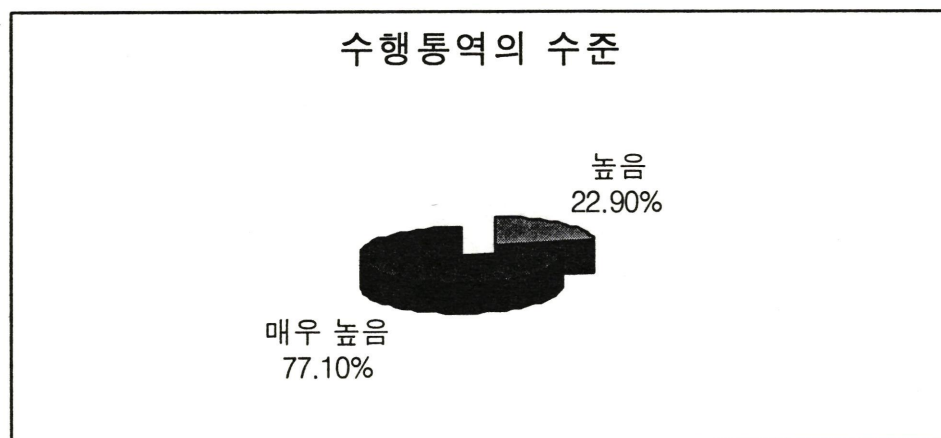
<표 7> 국가별 수행통역에 대한 평가

			수행통역		
			높음	매우 높음	Total
국 적	한국	Count	4	10	14
		%	28.6%	71.4%	100.0%
	중국(북경)	Count	0	3	3
		%	.0%	100.0%	100.0%
	중국(상해)	Count	0	4	4
		%	.0%	100.0%	100.0%
	중국(홍콩)	Count	0	2	2
		%	.0%	100.0%	100.0%
	일본	Count	5	14	19
		%	26.3%	73.7%	100.0%
	대만	Count	2	3	5
		%	40.0%	60.0%	100.0%
	무응답	Count	0	1	1
		%	.0%	100.0%	100.0%
Total		Count	11	37	48
		%	22.9%	7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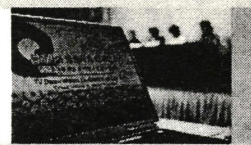
동시통역에 비해 수행통역에 대한 평가는 그 수준과 열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통이다’ 또는 ‘(매우)수준이 낮다’ 등의 응답은 없었으며, 77.1%의 응답자가 수행통역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의 작가들은 전원이 수행통역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작가들도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 작가들의 경우 매우 높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0.0%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내렸다.

<차트 7> 수행통역에 대한 평가



V. 부록



◎ 컨퍼런스 진행요원의 수준 및 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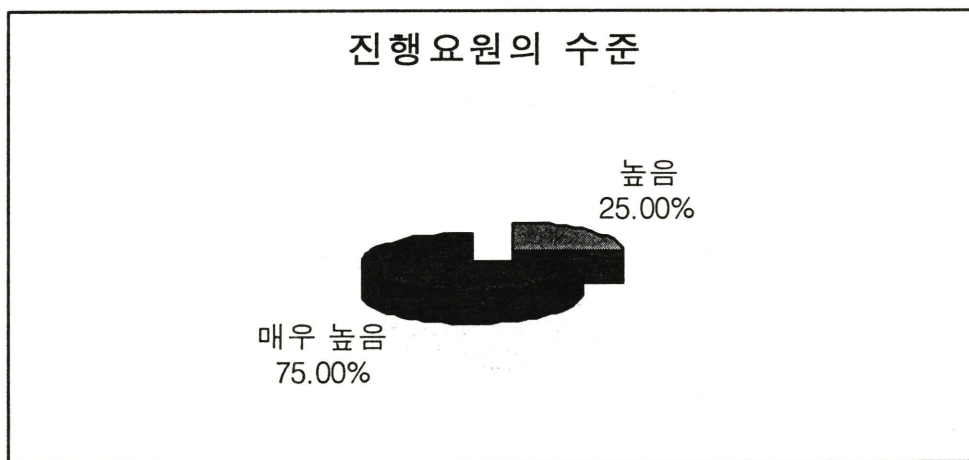
<표 8> 국가별 진행요원에 대한 평가

			진행요원		
			높음	매우 높음	Total
국적	한국	Count	5	9	14
		%	35.7%	64.3%	100.0%
	중국(북경)	Count	0	3	3
		%	.0%	100.0%	100.0%
	중국(상해)	Count	1	3	4
		%	25.0%	75.0%	100.0%
	중국(홍콩)	Count	0	2	2
		%	.0%	100.0%	100.0%
	일본	Count	6	13	19
		%	31.6%	68.4%	100.0%
	대만	Count	0	5	5
		%	.0%	100.0%	100.0%
	무응답	Count	0	1	1
		%	.0%	100.0%	100.0%
Total		Count	12	36	48
		%	25.0%	75.0%	100.0%

컨퍼런스 진행요원에 대한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사 일반사항에 대한 평가 중 수행통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만족도(4.75점)를 나타냈던 부분이다. 75.0%의 응답자가 진행요원들의 수준과 열성이 매우 높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거나 그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는 없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화권 국가(중국과 대만)들의 작가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국제회의 수준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차트 8> 진행요원에 대한 평가



V. 부록



2) 컨퍼런스 내용에 대한 평가

컨퍼런스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들은 타 국가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의 드라마와 발표 및 토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세션은 어느 국가였는지 등에 대해 묻고 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의 드라마

<표 9> 국가별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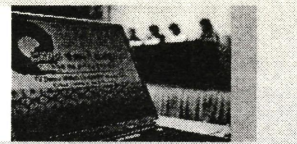
			드라마인상			
			한국	중국	일본	Total
국적	한국	Count	3	0	11	14
		%	21.4%	.0%	78.6%	100.0%
	중국(북경)	Count	2	0	1	3
		%	66.7%	.0%	33.3%	100.0%
	중국(상해)	Count	3	0	1	4
		%	75.0%	.0%	25.0%	100.0%
	중국(홍콩)	Count	2	0	0	2
		%	100.0%	.0%	.0%	100.0%
	일본	Count	16	3	0	19
		%	84.2%	15.8%	.0%	100.0%
	대만	Count	1	1	3	5
		%	20.0%	20.0%	60.0%	100.0%
	무응답	Count	1	0	0	1
		%	100.0%	.0%	.0%	100.0%
Total		Count	28	4	16	48
		%	58.3%	8.3%	33.3%	100.0%

이번 컨퍼런스에는 발표와 토론에 앞서 해당 국가의 드라마를 시청했다. 4개국의 드라마를 시청한 결과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의 드라마는 ‘한국(58.3%, 재측정: 55.6%)²⁾’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본(33.3%, 재측정: 35.6%)’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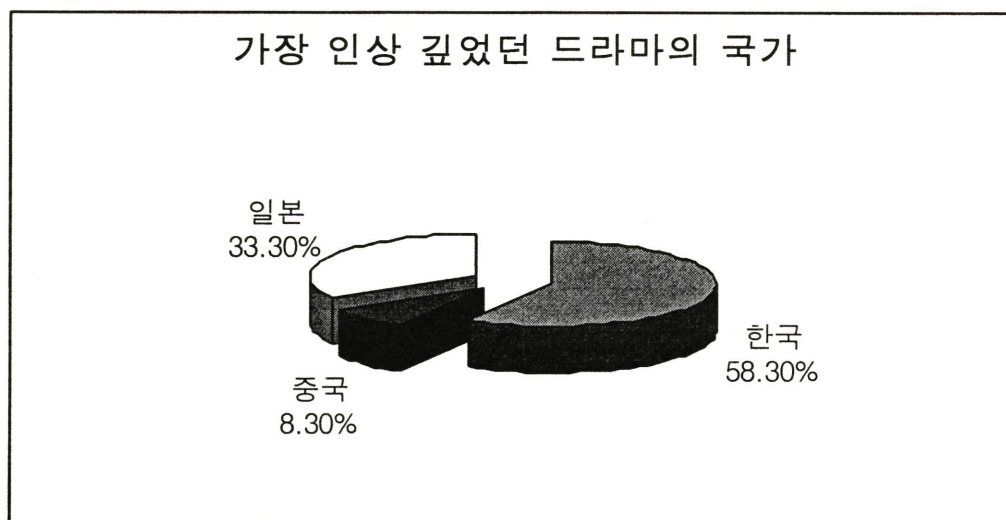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작가들은 일본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의 작가들은 한국 드라마가, 대만 작가들은 일본 드라마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응답해 각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²⁾ 설문지에는 타 국가들 중 선택하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한국 작가 중 3명이 ‘한국’을 선택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을 재측정한 결과 55.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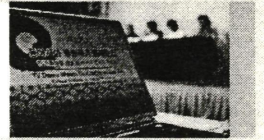
V. 부록



<차트 9> 가장 인상 깊었던 드라마의 국가



V. 부록



◎ 발표 및 토론회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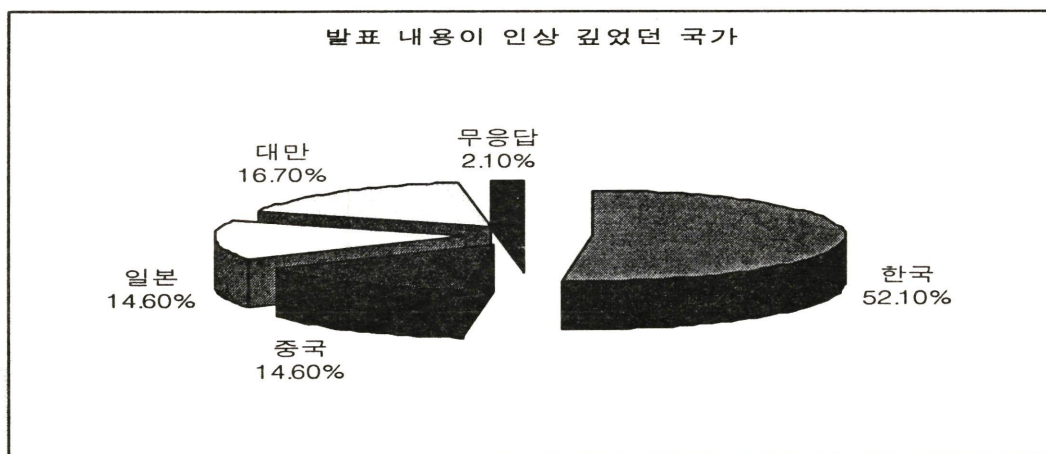
<표 10> 국가별 인상 깊었던 발표 및 토론 국가

			세션인상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무응답	Total
국적	한국	Count	7	2	4	1	0	14
		%	50.0%	14.3%	28.6%	7.1%	.0%	100.0%
	중국 (북경)	Count	1	1	0	1	0	3
		%	33.3%	33.3%	.0%	33.3%	.0%	100.0%
	중국 (상해)	Count	3	0	0	1	0	4
		%	75.0%	.0%	.0%	25.0%	.0%	100.0%
	중국 (홍콩)	Count	1	1	0	0	0	2
		%	50.0%	50.0%	.0%	.0%	.0%	100.0%
	일본	Count	11	2	1	4	1	19
		%	57.9%	10.5%	5.3%	21.1%	5.3%	100.0%
	대만	Count	1	1	2	1	0	5
		%	20.0%	20.0%	40.0%	20.0%	.0%	100.0%
	무응답	Count	1	0	0	0	0	1
		%	100.0%	.0%	.0%	.0%	.0%	100.0%
Total		Count	25	7	7	8	1	48
		%	52.1%	14.6%	14.6%	16.7%	2.1%	100.0%

이번 컨퍼런스의 발표 및 토론 세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만(16.7%), 중국과 일본(각 14.6%)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출신 작가들과 일본 출신 작가들은 모두 한국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응답한 반면 대만의 작가들은 일본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더 인상 깊었다고 응답했다.

<차트 10> 발표 및 토론 내용이 인상 깊었던 국가



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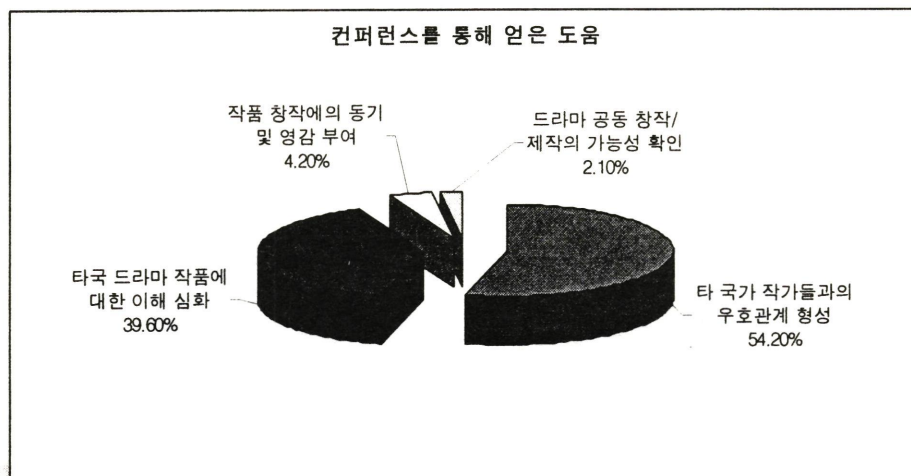
◎ 컨퍼런스를 통해 도움이 된 점

<표 11> 국가별 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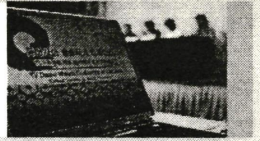
			도움된 점				
			타 국가 출신 작가들과의 우호관계 형성	타 국가 드라마 작품에 대한 이해 심화	작품 창작에의 동기 및 영감 부여	드라마 공동 창작 또는 제작의 가능성 확인	Total
국적	한국	Count	6	6	1	1	14
		%	42.9%	42.9%	7.1%	7.1%	100.0%
	중국 (북경)	Count	2	1	0	0	3
		%	66.7%	33.3%	.0%	.0%	100.0%
	중국 (상해)	Count	1	3	0	0	4
		%	25.0%	75.0%	.0%	.0%	100.0%
	중국 (홍콩)	Count	0	1	1	0	2
		%	.0%	50.0%	50.0%	.0%	100.0%
	일본	Count	13	6	0	0	19
		%	68.4%	31.6%	.0%	.0%	100.0%
대만	Count	3	2	0	0	0	5
	%	60.0%	40.0%	.0%	.0%	.0%	100.0%
무응답	Count	1	0	0	0	0	1
	%	100.0%	.0%	.0%	.0%	.0%	100.0%
Total		Count	26	19	2	1	48
		%	54.2%	39.6%	4.2%	2.1%	100.0%

이번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얻은 유익한 점으로는 ‘타 국가 출신 작가들과의 우호관계 형성’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54.2%나 돼, 동아시아 작가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유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타 국가 작품(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도 39.6%로 나타나 컨퍼런스 내실과 외실을 모두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트 11> 국가별 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점



V. 부록



3) 향후 정기 개최에 대한 의견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향후 동일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에 대한 작가들의 의견과 참가 시 경비부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행사의 정기적 개최에 동의하고 있으며, 경비의 일부라도 본인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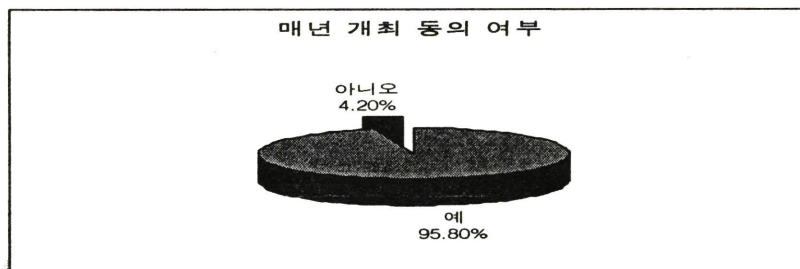
◎ 컨퍼런스의 정기적(매년) 개최 동의 여부

<표 12> 컨퍼런스 정기 개최에 대한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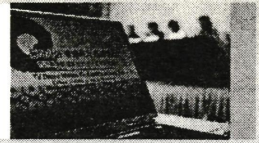
			매년 개최		
			예	아니오	Total
국적	한국	Count	12	2	14
		%	85.7%	14.3%	100.0%
	중국(북경)	Count	3	0	3
		%	100.0%	.0%	100.0%
	중국(상해)	Count	4	0	4
		%	100.0%	.0%	100.0%
	중국(홍콩)	Count	2	0	2
		%	100.0%	.0%	100.0%
	일본	Count	19	0	19
		%	100.0%	.0%	100.0%
	대만	Count	5	0	5
		%	100.0%	.0%	100.0%
	무응답	Count	1	0	1
		%	100.0%	.0%	100.0%
Total		Count	46	2	48
		%	95.8%	4.2%	100.0%

전체 응답자 48명 중 46명(95.8%)가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가 매년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한 참가국 소속 방송작가들 전원이 매년 개최되기를 희망했으며, 한국의 경우 총 14명의 작가들 중 12명(85.7%)이 매년 개최되기를 희망했으며, 매년 개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남은 2명의 작가들도 2년에 한번씩 개최된다면 참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차트 12> 컨퍼런스 매년 개최에 대한 동의 여부



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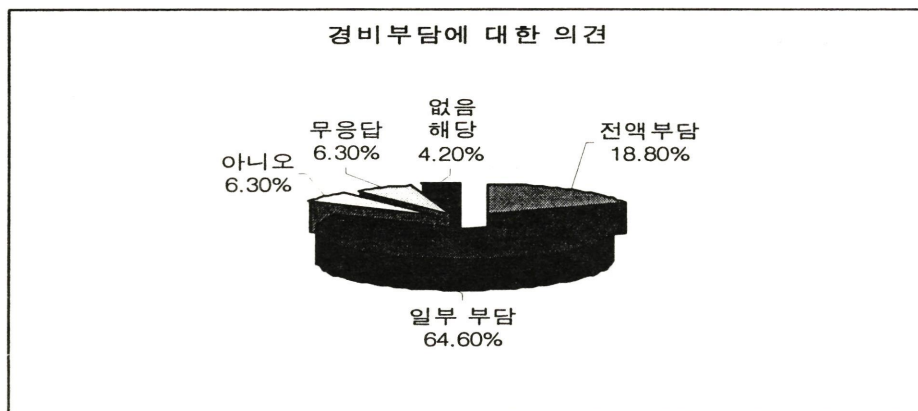
◎ 컨퍼런스 참가 경비 부담

<표 13> 컨퍼런스 참가 경비에 대한 의견

			경비부담					
			예	일부 경비는 부담 가능	아니오	무응답	해당 없음	Total
국적	한국	Count	1	9	2	0	2	14
		%	7.1%	64.3%	14.3%	0.0%	14.3%	100.0%
	중국(북경)	Count	0	2	0	1	0	3
		%	0.0%	66.7%	0.0%	33.3%	0.0%	100.0%
	중국(상해)	Count	0	4	0	0	0	4
		%	0.0%	100.0%	0.0%	0.0%	0.0%	100.0%
	중국(홍콩)	Count	0	2	0	0	0	2
		%	0.0%	100.0%	0.0%	0.0%	0.0%	100.0%
	일본	Count	7	10	1	1	0	19
		%	36.8%	52.6%	5.3%	5.3%	0.0%	100.0%
	대만	Count	1	4	0	0	0	5
		%	20.0%	80.0%	0.0%	0.0%	0.0%	100.0%
	무응답	Count	0	0	0	1	0	1
		%	0.0%	0.0%	0.0%	100.0%	0.0%	100.0%
Total		Count	9	31	3	3	2	48
		%	18.8%	64.6%	6.3%	6.3%	4.2%	100.0%

매년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참가 경비 부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일부 경비를 본인 부담하여 참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67.4%³로 가장 많았으며,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참석하고 싶다는 의견이 19.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비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6.5%에 그쳤다.

<차트 13> 컨퍼런스 참가 경비에 대한 의견



³ 표에 나타난 %와 본문 내용의 %가 약간의 차이를 보임. 그 이유는 표에서 제시된 %는 '아니오'로 대답한 '해당없음' 2명이 포함된 결과임. 따라서 '예'로 응답한 사람들 46명을 기준으로 %를 재측정하여 본문 내용에 기재하였음.

V. 부록



4) 기타의견

◎ 불만족 항목에 대한 이유

1) 컨퍼런스 장소

- 너무도 고급스런 느낌
- 회의장 에어컨 조절(온도 관리) 기능과 마이크 조절 기능이 좋지 못했음
- 나쁘진 않았지만 파라다이스나 메리어트처럼 편의시설에 가까운 곳이면 좋았을 것 이란 생각이 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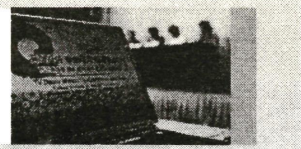
2) 컨퍼런스 전체 일정과 시간 배분

-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하는 느낌이 들어, 여유가 없었음
- 매체들과의 개별 일정 진행시간이 다소 부족했음
- 하루에 2편을 감상하는 것이 꽤 피곤함
-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토의 내용에 조금 변화를 주는 편도 좋았을 것 같음
- 다른 나라의 드라마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었는데 토론시간이 너무 짧았음

3) 자료집 관련.

- 일본, 중국 작가들을 위해 (TV)자막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음
- 자료집 내 사용된 사진이 별로였음
- 자료집 내 정보(작품명, 이메일 등)를 사전에 알려줘서 모든 나라를 통일해 두었 으면 좋았을 것 같음
- 참석자 이름이 틀렸음
- 원고 교정을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나눠서(분책) 인쇄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음
- 인쇄가 정교했으면 좋겠음

V. 부록



◎ 국가별 기타 제안사항

<한국>

- 주최해 주신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과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감사 드리며 매년 국가를 돌아가며 이런 컨퍼런스가 열렸으면 함. 그리고 각 국가의 방송국에서 협찬을 받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음. 이런 회의는 분명 방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젊은 작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음
- 하루에 2개국의 드라마를 보고 평가와 그 작품 내지 그 나라에 관한 문화(대중성)에 접근한다는 것은 너무 빠듯하고 주입식의 진행이라 생각함. 이런 좋은 행사를 참석자들로 하여금 좀더 편한 상황에서 했으면 함. 덕분에 좋은 경험과 한국작가로서의 자긍심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음
- 드라마 상영 시 타 국가 자막도 필요함
- 장소를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한국에서도 서울, 제주, 경주 등을 순회하며 개최)
- 좋아하는 분야별로 그룹별 토론의 시간도 필요
- 개인시간을 보다 더 보장해주고, 조금만 여유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음

<일본>

- 상영 작품 수를 늘리면 좋았을 것 같음. 계속해서 보고 싶었음
-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임
- 비디오에 일본어 자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임
- 음식이 맛있고 너무 좋은 대접을 받았음. 수고 많았음
- 4개국 교류가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함. 이를 위해서 회의 및 교류회 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는 4개국 합동기획(프로그램작품) 등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음
- 컨퍼런스가 더 나아가 TV의 본질과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음
- 적어도 3일이 필요할 것 같다. 유사점과 함께 서로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드라마 이야기는 '언어의 뉘앙스'가 매우 중요함. 동시통역의 수준을 좀더 올리지 않으면 회의 전체의 의미가 적어짐

<중국>

- 광둥어 통역도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음
- 각 국가, 관련 지역을 돌아가면서 개최했으면 좋겠음